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3. 9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제15권 제3호

ISSN 1599-9009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3. 9



「KEEI 에너지수요전망」은 국제 에너지시장 및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과 단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수록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에너지수급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에너지 수급전망 지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수급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연구실에 의해 작성 · 편집합니다.

KEEI 에너지수요전망

연구총괄

김 태 현 thkim@keei.re.kr

총에너지

김 태 현 thkim@keei.re.kr

석유

이 승 문 paragon@keei.re.kr

전력

최 도 영 dychoi@keei.re.kr

도시가스/열에너지

박 명 덕 mdpark@keei.re.kr

석탄

이 상 열 akan539@keei.re.kr

자료·연구지원

조 은 정 12220@keei.re.kr

자료·연구지원

장 선 화 jsh9459@keei.re.kr

통계지원

이 보 혜 bhlee@keei.re.kr

전화번호 (031) 420-2264, 420-2234

팩스번호 (031) 420-2164

제 목 차례

요 약	7
2014년 에너지 수요 전망	13
제 1 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	15
1. 국제 석유시장	17
2. 국제 천연가스 시장	21
3. 국제 석탄 시장	25
제 2 장 국내 경제동향 및 전망 전제	29
1. 국내 경제동향	31
2. 에너지 수요 전망전제	37
제 3 장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39
1. 총에너지	41
2. 석유제품	53
3. 전력	63
4. LNG 및 도시가스	72
5. 석탄	79
6.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83
7. 특징 및 시사점	86
참고 문헌	93
부록	94

표 차 례

〈표 I -1〉 국제 원유가 추이 및 전망	18
〈표 I -2〉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IEA).....	20
〈표 I -3〉 국제 천연가스 가격 동향 및 전망.....	22
〈표 I -4〉 세계 천연가스 수급 동향 및 전망.....	24
〈표 I -5〉 국제 석탄 가격 동향 및 전망.....	26
〈표 I -6〉 세계 석탄 수급 동향과 전망	28
 〈표 II-1〉 주요 경제 지표 동향	35
〈표 II-2〉 산업생산지수 추이 (2010=100)	35
〈표 II-3〉 국내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36
〈표 II-4〉 경제성장률 전제	37
〈표 II-5〉 기온변수 전제	37
〈표 II-6〉 국제원유가 전망	38
 〈표III-1〉 일차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51
〈표III-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52
〈표III-3〉 부문별 석유 수요 전망	62
〈표III-4〉 제품별 석유 수요 전망	62
〈표III-5〉 전력 수요의 GDP 탄성치	68
〈표III-6〉 전력 수요 동향 및 전망	71
〈표III-7〉 LNG 수요 전망	78
〈표III-8〉 도시가스 수요 전망	78
〈표III-9〉 석탄 수요 전망	82
〈표III-10〉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85

그림 차례

[그림 I -1] WTI 가격 동향 및 전망	17
[그림 I -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전망	22
[그림 I -3] 세계 천연가스 수급 동향 및 전망	24
[그림 I -4] 국제 석탄 가격 동향	25
[그림 II-1]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31
[그림 II-2]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32
[그림 II-3] 물가상승률 추이	32
[그림 II-4] 2013년 1분기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33
[그림 II-5] 석유제품 가격 추이	34
[그림 II-6] 주요 에너지 가격지수 추이	34
[그림III-1] 최근 경제 및 총에너지 소비 동향	41
[그림III-2] 일차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43
[그림III-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44
[그림III-4]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 증가율	45
[그림III-5] 에너지원단위 및 일인당 소비 전망.....	46
[그림III-6] 에너지원별 비중 추이	48
[그림III-7]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	50
[그림III-8] 석유 제품별 수요 증가율 추이.....	54
[그림III-9] 휘발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5
[그림III-10] 수송용 경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5
[그림III-11] 등 · 경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6
[그림III-12] 중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6
[그림III-13] 납사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7
[그림III-14] LPG 소비 및 증가율 추이	58
[그림III-15] 소비 부문별 석유 수요 전망	60

[그림III-16] 석유 제품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	61
[그림III-17] 최근 경기 동향과 산업용 전력 소비	64
[그림III-18] 2013년 1분기 업종별 제조업 전력 소비 비중(%)	65
[그림III-19] 전력 소비 증가율 추이	66
[그림III-20] 경제성장률 및 전력 수요 증가율 전망	68
[그림III-21] 부문별 전력 수요 전망	70
[그림III-22]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 추이 및 전망	70
[그림III-23] 용도별 LNG 소비 증가율 추이	73
[그림III-24]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 추이	74
[그림III-25] 용도별 도시가스 비중 추이	75
[그림III-26] 용도별 LNG 수요 전망	76
[그림III-27] 용도별 도시가스 수요 전망	77
[그림III-28] 주요 석탄제품 소비 추이	80
[그림III-29] 용도별 석탄 수요 전망	82
[그림III-30]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83
[그림III-31] 열에너지 수요 전망	84
[그림III-32]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85
[그림III-33] 석유 의존도 추이 및 전망	88
[그림III-34]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추이	90



• 요약

에너지 소비 동향

- **(총에너지)**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138.9백만 TOE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 이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 지속에 따른 결과
 - * 국내 경제성장률(%): ('11) 3.7 ⇒ ('12) 2.0 ⇒ ('13 상반기) 1.9
 - * 총에너지 증가율(%): ('11) 4.5 ⇒ ('12) 2.1¹⁾ ⇒ ('13 상반기) 0.2
 - 원료용 에너지(비에너지유, 원료탄)를 제외할 경우 소비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
 - 일차에너지에서 원료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 26%에 달함.

- **(원별 소비)** 석유 및 원자력은 감소, 석탄 및 LNG는 증가
 - (석유) 납사소비 증가세 둔화(0.9% 증가) 및 난방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
 - (천연가스) 발전용(5.2%)과 도시가스용(4.3%) 모두 증가
 - (석탄) 산업용은 3.1% 감소한 반면, 발전용은 4.7% 증가
 - (원자력) 일부 발전소 가동정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 (전력) 생산 활동 둔화 및 전력수요관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1.1% 증가

- **(부문별 소비)**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은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반면, 산업부문(0.7%)과 수송부문(0.1%)는 보합세

1) 총에너지는 2011년과 동일열량을 적용할 경우 2.1%, 개정 에너지열량환산 기준(2011.12.30.)을 적용할 경우 0.7% 증가

에너지 수요 전망

● **(총에너지)** '14년 총에너지 수요는 2.8% 증가한 289.2백만 TOE를 기록할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12) 2.0 ⇒ ('13) 2.8 ⇒ ('14) 3.8

- 총에너지수요 증가는 원자력(10.9%)과 LNG(3.7%)가 주도

● **(주요 에너지지표)**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

며, 1인당 에너지소비는 5.73 TOE에 이를 전망

*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 ('11) 0.255 → ('12) 0.251 → ('13) 0.248 → ('14) 0.245

* 1인당 에너지소비(TOE): ('11) 5.54 → ('12) 5.55 → ('13) 5.63 → ('14) 5.73

● **(원별 수요)** 거의 모든 에너지원이 증가세 시현

- 석유(1.1% 증가): 납사(1.6%) 및 수송 연료유(1.6%)가 수요 증가를 견인

* 석유 중 납사 비중: ('12) 46.5% → ('13) 46.6% → ('14) 46.8%

- 석탄(1.3% 증가): 연말 신규 석탄발전소(영흥화력5호기)의 준공에 따른 발전용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제철용 수요로 소폭 상승

- 원자력(10.9% 증가): 케이블 문제로 인한 가동을 중단했던 일부 원전(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증가

- LNG(3.7% 증가): 금년에 원전 발전량 감소로 발전용이 크게(8.5%) 증가할 것이나,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1.1% 증가) 수준을 보일 전망. 연료대체 현상 지속으로 도시가스 수요는 크게(5.6%) 증가

● **(부문별 수요)** '14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으로 2.5% 증가

- 산업(2.8% 증가): 도시가스(10.1%), 전력(4.6%), 납사(1.6%)이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

- 수송(2.0% 증가): 고유가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대형화, 여행수요

증가 등에 기인

- 가정·상업·공공(2.0% 증가): 도시가스(2.3%), 전력(2.6%), 열에너지(1.5%)는 증가. 반면, 석유(-1.7%)와 무연탄(-3.2%)은 감소

〈주요 에너지원별 증가율〉

(전년비, %)

구 분	2011	2012p	2013e	2014e
총에너지	4.5	0.7(2.1)	1.3	2.8
석 유	0.9	3.2	0.2	1.1
석 탄	8.1	-2.1	1.4	1.3
천연가스	7.6	8.1	5.4	3.7
전 力	4.8	2.5	1.8	3.7
원자력	1.1	0.1	-4.6	10.9

주 :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주요 특징

-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정지로 2013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이들 원전이 재가동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
 - 2014년에는 원자력 비중이 다소 상승
 - * 일차에너지 중 원자력 비중: ('12) 11.4% → ('13) 10.8% → ('14) 11.6%
- 총에너지 중 석유비중이 37.2%로 하락
 - * 1차에너지 중 석유 비중: ('12) 38.2% → ('13) 37.8% → ('14) 37.2%
 - 비에너지유를 제외할 경우 석유의 비중은 18.8%로 LNG의 비중(18.9%)과 비슷한 수준
- 최종에너지 수요증가의 69%가 산업부문 수요증가에 기인
 - 도시가스, 전력, 원료용 납사 등이 산업용 수요증가를 견인
 - 경기회복 시 산업용 전력수요가 타 에너지수요보다 빠르게 증가
-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3.7%)은 경제성장률(3.8%)과 비슷할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활동 증가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증가(4.6%)할 전망
 - 전력소비는 낮은 요금 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조 지속, 전기 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등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

● 정책 시사점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보와 수요 증가 억제 노력 필요
 -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를 반영하여 저가격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전력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요금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전기 사용방법, 에너지소비 감축의 중요성 등과 같은 정보의 확산 및 홍보 강화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 동 · 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지속 추진 필요
 - 신규원전의 가동지연, 이상기후 발생,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 비상상황이 초래될 가능성 상존
 - 2013년 하반기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던 신월성 2호기(100만 kW)와 신고리 3호기(140만 kW)가 내년에도 가동이 어려울 전망
 - 2014년 전력수요는 3.7% 증가할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관리정책(피크전력 감축, 난방온도 제한조치 등)은 상시적으로 추진
- 동절기 LNG 수급 상황 점검 필요
 -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은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수요 급증의 원인
 - 이상기후 발생, 기저발전설비 가동 차질, 신규 원전의 가동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존재
 - 동계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므로 동계 LNG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14년 에너지 수요 전망



제 1 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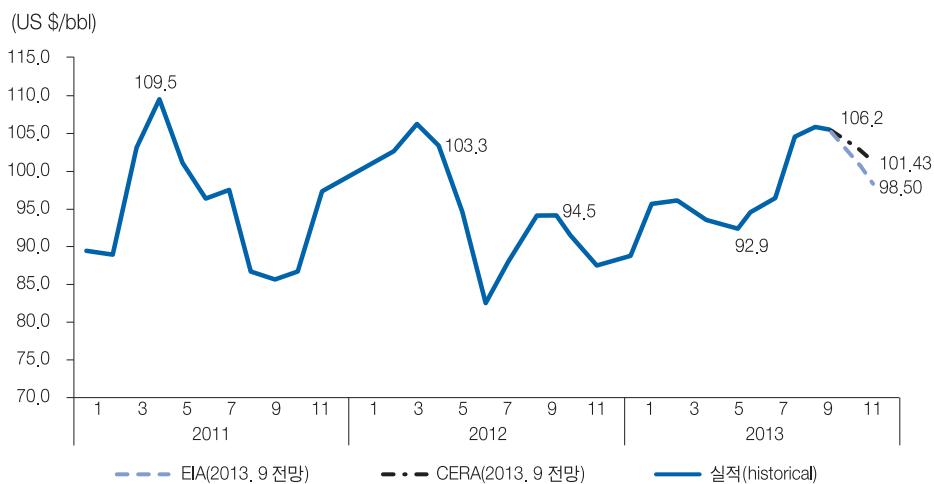
1. 국제 석유시장
2. 국제 천연가스 시장
3. 국제 석탄 시장

1 | 국제 석유시장

가. 가격동향 및 전망

- 2013년 2분기에 평균 \$94.1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WTI)가 2013년 3분기에는 평균 \$105.8²⁾로 급상승³⁾
 - 상반기 원유공급 과잉과 주요국들의 경기지표 악화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상반기 후반에 중동 정정 불안으로 상승하기 시작
 - 시리아 사태 악화, 중동지역 공급차질 증가, 미 원유재고 감소, 경기 지표 호전 등으로 3분기 국제유가가 급상승

[그림 I -1] WTI 가격 동향 및 전망



주: CERA: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

2) WTI기준이며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의 2013년 3분기 평균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6.2, \$110.0을 기록(한국석유공사)

3) WTI 9월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자료 이용

- 시리아 사태, 이집트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는 2013년 상반기에 전망했던 유가 보다 크게 상승하였지만, 2012년 유가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⁴⁾
 - 2013년 4분기 비OPEC의 공급증가로 공급과잉이 유지되면서 3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시리아 사태 같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표 I -1〉 국제 원유가 추이 및 전망

(단위: \$/Bbl)

구 분	2012 연평균	2013					2014e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CGES (`13.9.23)	Brent (D)	112.4	113.7	103.0	110.7	111.7	109.8	108.9	107.5	106.5	100.2
CERA (`13.9.5)	Dubai	109.1	108.2	100.8	105.8	102.6	104.4	100.1	97.5	95.4	94.1
	Brent (D)	111.7	112.6	102.4	110.4	108.0	108.4	104.0	101.0	99.0	97.5
	WTI	94.1	94.3	94.1	106.2	103.4	99.5	99.7	96.8	94.6	93.4
EIA (`13.9.10)	WTI	94.1	94.3	94.1	105.4	100.5	98.6	97.2	98.0	95.7	94.0
PIRA (`13.9.24)	Brent	111.6	112.6	102.5	110.5	113.7	109.8	111.4	107.2	109.1	109.5
	WTI	94.2	94.3	94.1	109.95	108.0	100.6	104.7	101.2	103.3	103.0

주: CGES: 세계에너지센터(런던)

CERA: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 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

4) 2013년 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CGES는 약 \$105, CERA는 약 \$95~104, EIA는 약 \$94, PIRA는 약 \$98~107로 전망 (에너지 수요전망 2013.6 참조)

나. 수급동향 및 전망

- IEA는 2013년 10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를 통하여 2013년 3분기 일일 석유수요는 91.7백만 b/d로 잠정 집계
 - 전년동기대비 OECD 석유수요는 0.1백만 b/d 감소하였지만, 비OECD 석유수요는 1.2백만 b/d 증가
 - OECD의 3분기 석유수요는 45.8백만 b/d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 비OECD의 3분기 석유수요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요증가로 인해 2.7%(45.8백만 b/d)로 증가
 - 3분기 세계 일일 석유공급량은 91.7백만 b/d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 비OPEC의 3분기 일일 석유공급량은 54.7백만 b/d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세일오일과 오일샌드 생산 활황으로 북미의 3분기 일일 석유공급량이 17.3백만 b/d로 나타나 비OPEC의 생산증가를 견인
 - OPEC의 3분기 일일 석유공급량은 37.0백만 b/d로 2.1% 하락
 - 3분기 리비아의 생산량 급감으로 OPEC의 석유 공급 하락⁵⁾
- IEA는 2013년 세계 석유수요가 91.0백만 b/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냉방 사용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완만한 개선 효과로 석유수요는 증가
 -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과거 전망보다 수요가 증가
 - 최근 신흥 개도국들의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은 수요에 대한 가격효과를 높임.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폐루,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 개도국들의 자국 통화 가치하락은 석유수요 증가세를 억제

5) 리비아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7월 1.00백만 b/d에서 8월 0.55백만 b/d로 급감

- 전년대비 2013년 OECD의 석유수요는 0.3백만 b/d 감소하지만, 비OECD의 석유수요는 1.3백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EA는 2013년 비OPEC 국가들의 석유 공급량이 54.6백만 b/d로 전년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OPEC 석유공급은 4분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캐나다의 비전통 석유 생산증가가 비OPEC 생산증가를 견인
 - OPEC의 NGL과 비OPEC의 공급증가가 OPEC의 원유감산을 상쇄

(표 I -2)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IEA)

(단위: 백만 b/d)

구 분	2012					2013e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수요	OECD	46.3	45.6	46.0	46.2	46.0	45.8	45.4	45.8	45.7
	-북미	23.4	23.7	23.8	23.8	23.7	23.7	23.7	23.9	23.8
	-유럽	13.7	13.8	13.8	13.7	13.7	13.2	13.8	13.8	13.4
	비OECD	42.7	43.9	44.5	44.8	44.0	44.2	45.1	45.8	46.0
	전세계	89.0	89.5	90.5	91.1	90.0	90.0	90.6	91.7	91.0
공급	비OPEC	53.4	52.9	53.0	54.2	53.4	53.9	54.2	54.7	55.5
	-OECD	19.9	19.7	19.4	20.5	19.9	20.6	20.5	20.9	21.5
	-비OECD	29.8	29.2	29.3	29.7	29.5	29.7	29.6	29.3	29.7
	OPEC	37.5	37.9	37.8	37.1	37.6	36.8	37.2	37.0	-
	전세계	90.9	90.8	90.8	91.3	91.0	90.7	91.5	91.7	-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3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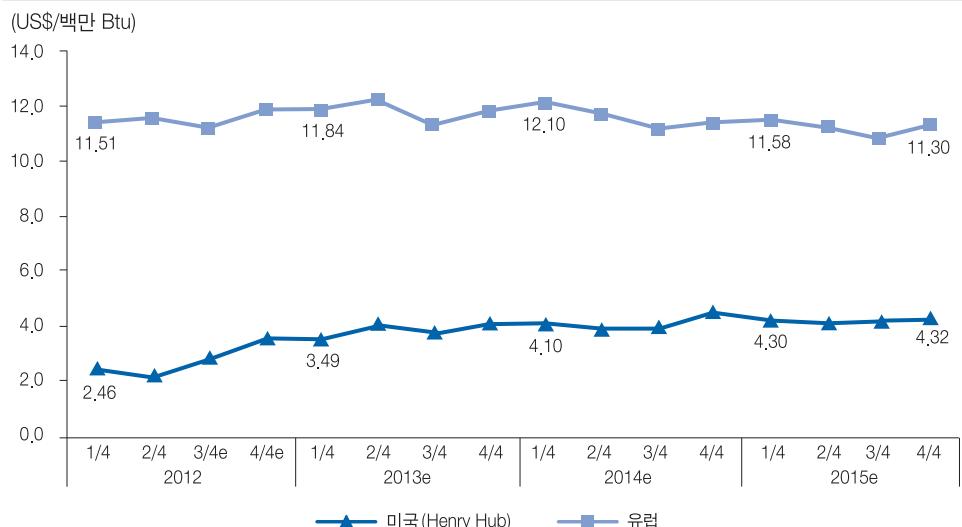
2 | 국제 천연가스 시장⁶⁾

가. 가격 동향 및 전망

-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공급과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역별로 상이함.
 -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Henry Hub)은 2013년 2분기에 \$4.00/백만 Bt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5.4% 급증
 -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한파의 영향에 따른 수요 급증에 기인
 - 과거 높은 재고량은 보이던 미국은 2013년 상반기에 한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재고량이 7.2% 감소했으나 평년기온을 회복한 여름에 다시 재고량이 증가하여 8월 기준으로 지난 5년 평균보다 재고량이 1.5% 증가
 -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가격은 2013년 2분기에 \$12.40/백만 Bt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함.
 - 장기간의 한파로 인한 수요급증이 가격 상승을 주도
- 2013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12년에 비해 상승할 전망
 - 미국 천연가스 가격(Henry Hub)은 2012년 세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평균 \$3.79/백만 Btu로 전년 대비 37.6% 상승할 전망
 - 유럽 천연가스 수입가격은 2013년에는 연평균 \$11.95/백만 Btu로 전년보다 4.2% 상승할 전망
 - 역내 생산량 감소와 국제 원유가격 강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할 전망

6) 본 장은 EIU의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October 2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그림 I -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전망



〈표 I -3〉 국제 천연가스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US\$/백만 Btu)

구 분	2013e					2014e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미국	2.75	3.49	4.00	3.65	4.02	3.79	4.11
유럽	11.47	11.84	12.40	11.61	11.94	11.95	11.75

주: 1) e는 전망치

2)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Henry Hub, 유럽(영국 제외)의 경우는 수입 국경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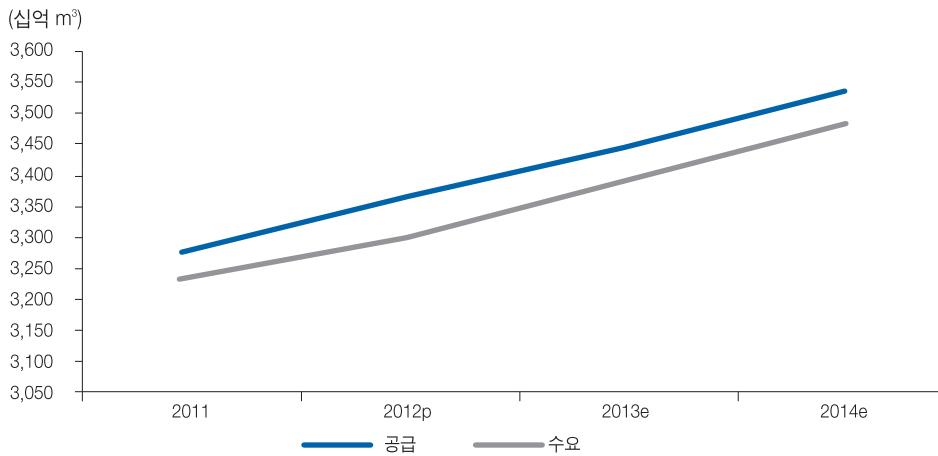
자료: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July 2013

나. 수급 동향 및 전망

-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2013년에 전년대비 2.7% 증가한 3,390.6십억 m³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4년에도 2.7% 증가할 전망
 - 미국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스발전수요의 상승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에 2.3%, 2014년에 0.8% 증가할 전망
 - 가스가격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가스발전시설 확충으로 가스수요는 점점에 이를 전망
 - 서유럽은 재정 위기와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석탄발전수요의 증가로 인해 2012년에 2.0% 감소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 이상기온에 의한 한파의 영향으로 2.3% 증가할 전망이며 2014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1.8%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강한 수요 증가세를 지속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와 호주의 가스 수요는 2013년에 4.3%, 2014년에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세계 천연가스 생산은 2013년에 전년대비 2.4% 증가한 3,446.1십억 m³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4년에도 2.7% 증가할 전망
 - 천연가스 생산 증가는 대부분 북미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할 전망
 - 북미지역은 세일가스 개발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인해 2013년은 0.9%, 2014년에는 1.6%의 소폭 상승이 시현될 전망
 - 2013년에 4.8%, 2014년에 4.7%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동지역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라크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모잠비크와 탄자니아의 생산이 아프리카 지역의 가스 생산을 주도하며 2013년에 5.3%, 2014년에 4.9%의 높은 생산량 증가가 전망됨

[그림 I -3] 세계 천연가스 수급 동향 및 전망



<표 I -4> 세계 천연가스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십억 m³)

구 분	공급			수요		
	2012p	2013e	2014e	2012p	2013e	2014e
북미	887.2 (2.7)	895.0 (0.9)	909.5 (1.6)	878.1 (3.2)	898.5 (2.3)	906.0 (0.8)
동유럽/ 독립국가연합	772.4 (-0.5)	800.0 (3.6)	820.0 (2.5)	593.0 (-2.5)	599.8 (1.1)	608.4 (1.4)
서유럽	279.0 (0.7)	270.4 (-3.1)	271.3 (0.3)	506.1 (-2.0)	517.8 (2.3)	527.0 (1.8)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493.7 (3.0)	502.3 (1.7)	515.1 (2.5)	625.0 (5.3)	652.0 (4.3)	686.0 (5.2)
중동	558.9 (6.2)	586.0 (4.8)	613.5 (4.7)	411.8 (4.3)	423.8 (2.9)	446.0 (5.2)
중남미	160.9 (5.0)	167.3 (4.0)	172.3 (3.0)	165.1 (5.6)	170.7 (3.4)	175.8 (3.0)
아프리카	213.8 (5.5)	225.1 (5.3)	236.1 (4.9)	122.8 (7.7)	128.0 (4.2)	134.2 (4.8)
전세계	3,365.9 (2.7)	3,446.1 (2.4)	3,537.9 (2.7)	3,301.8 (2.1)	3,390.6 (2.7)	3,483.4 (2.7)

주: 1) 팔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2)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뉴기니를 포함한 남태평양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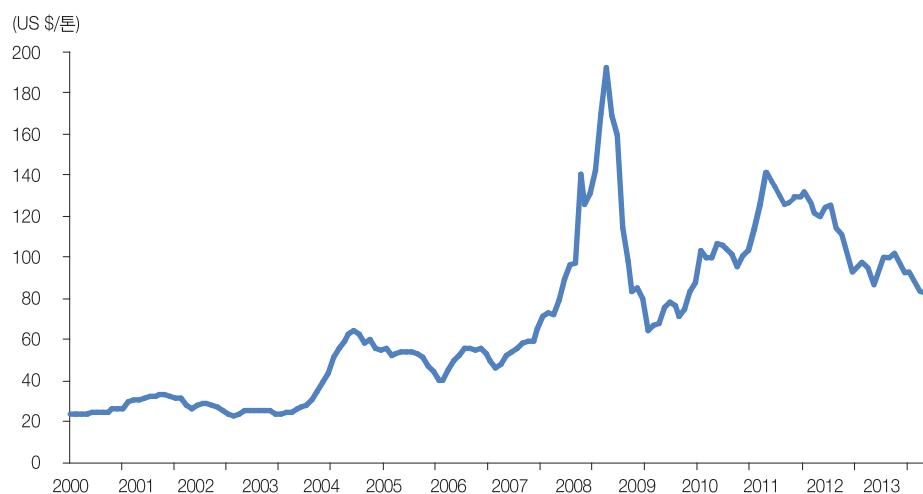
자료: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July 2013

3 | 국제 석탄 시장

가. 가격 동향 및 전망

- 2013년 국제 석탄가격은 전년도의 급락세(전년대비 -21%)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있음.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흥 경제국의 석탄소비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의 초과공급현상이 지속되어 국제가격이 폭락
 - 호주산 석탄가격은 지난 8월에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톤당 US \$77까지 하락
- EIU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연평균 국제 석탄가격은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겠으나, 여전히 -11.5%의 두 자리대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2014년에는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격폭락에 대응한 생산국들의 생산량 조절 정책으로 인해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

[그림 I -4] 국제 석탄 가격 동향



자료 : IMF (Primary Commodity Price)

〈표 I-5〉 국제 석탄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US \$/톤)

구 분	1/4	2/4	3/4	4/4	연간
2012	113.65 (-11.9)	95.54 (-20.8)	89.40 (-26.3)	86.87 (-24.4)	96.36 (-20.7)
2013e	92.90 (-18.3)	86.07 (-9.9)	78.00 (-12.8)	84.00 (-3.3)	85.24 (-11.5)
2014e	90.00 (-3.1)	86.00 (-0.1)	85.00 (9.0)	92.00 (9.5)	88.25 (3.5)

주: 1) 팔호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2) 석탄 가격은 Australian Thermal Coal의 가격임.

자료: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Oct 2013

나. 수급 동향 및 전망

- 2013년 상반기 국제석탄소비는 국제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전년의 완만한 증가세(전년대비 2.4%)를 지속
 - 세계 석탄 소비 증가를 견인해 오던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개도국의 소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 중국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수력 및 가스 발전의 이용 증가로 인한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하락으로 상반기 동안 1.8% 증가에 그침.
 - 미국은 예년보다 추웠던 겨울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5월까지 전년 대비 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유럽지역 역시 겨울이 예년보다 길게 지속되고, EU 탄소가격 하락에 따른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 증가로 석탄 소비가 증가
 - 영국의 석탄 소비는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독일은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강보합세를 기록
 - 일본은 후쿠시마사고 이후 발전원 확보를 위한 석탄발전소 건축규정 등을 완화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일본의 석탄 수입은 2013년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
- 2013년 및 2014년 세계 석탄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2.7%, 2.3%의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2013년에는 미국의 석탄소비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탄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어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세계 석탄수요는 2014년에도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선진국의 저탄소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2013년 상반기 세계 석탄공급 동향을 보면 중국과 미국에서는 국제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량 조절로 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인도와 호주에서는 증가
 - 중국은 국제 가격하락과 내수소비 감소로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 미국은 상반기동안 4.2% 감소
 - 그러나 자국 통화의 대미환율 상승으로 국제 석탄가격 폭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인도와 호주에서는 소폭의 증산정책을 유지
- 2013년과 2014년 국제 석탄공급은 각각 전년대비 0.3%, 2.5% 증가할 전망
 - 세계 석탄공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국제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2012년의 생산량 수준을 회복할 전망
 - 또한 인도의 석탄생산 설비 현대화 정책 및 호주의 생산비 절감노력은 세계 석탄 공급량 증가를 견인할 전망

〈표 I -6〉 세계 석탄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톤)

소 비				공급			
국가	2012	2013e	2014e	국가	2012	2013e	2014e
중국	3,607 (3.9)	3,697 (2.5)	3,827 (3.5)	중국	3,621 (3.8)	3,584 (-1.0)	3,674 (2.5)
미국	808 (-11.2)	842 (4.2)	790 (-6.2)	미국	922 (-7.2)	877 (-4.9)	851 (-3.0)
EU	782 (2.0)	786 (0.5)	790 (0.5)	인도	629 (8.4)	648 (3.0)	684 (5.6)
인도	727 (11.2)	770 (5.9)	814 (5.7)	호주	432 (4.3)	455 (5.3)	480 (5.5)
러시아	250 (7.3)	256 (2.4)	261 (2.0)	러시아	351 (5.1)	360 (2.6)	364 (1.1)
일본	185 (5.7)	190 (2.7)	192 (1.1)	인도네시아	410 (9.0)	422 (2.9)	439 (4.0)
세계 총계	7,563 (2.4)	7,767 (2.7)	7,943 (2.3)	세계 총계	7,908 (3.3)	7,931 (0.3)	8,127 (2.5)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자료: EIU,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July 2013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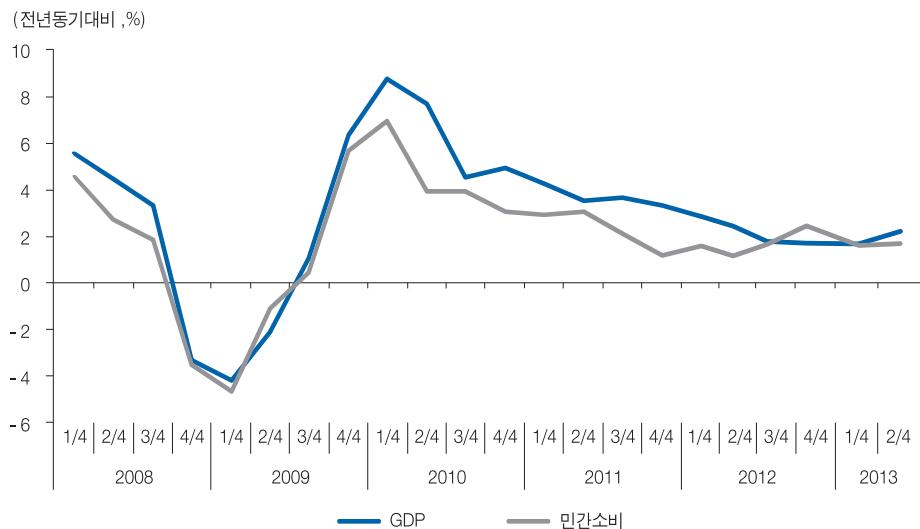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및 전망 전제

1. 국내 경제 동향
2. 에너지 수요 전망 전제

1 | 국내 경제 동향

-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3%, 민간소비 증가율은 1.7%로 잠정 집계
 - 2010년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분기에 상승
 - 2013년 2분기 소매판매는 증가,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판매 호조로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고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 증가

[그림 II-1]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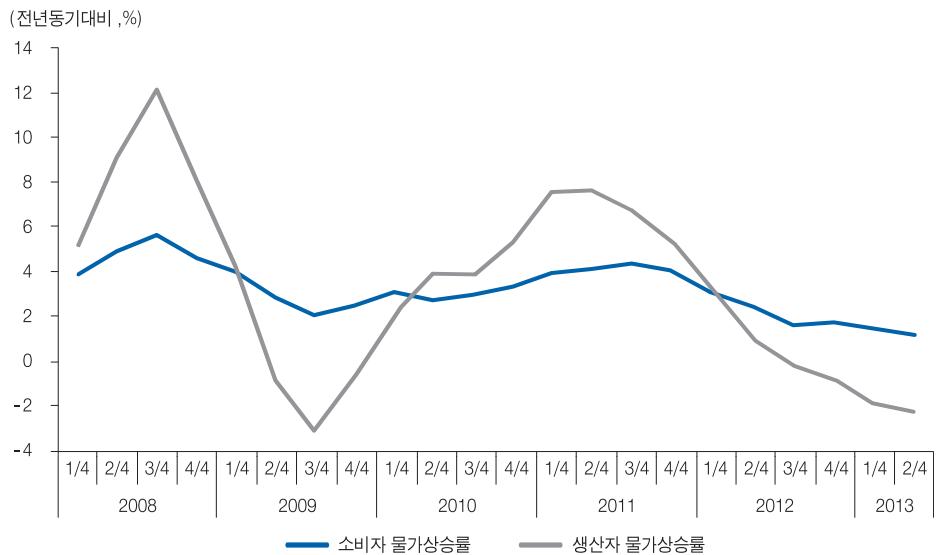


- 2013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1% 감소, 건설투자는 7.1% 증가로 잠정 집계
 - 2012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설비투자는 2013년 2분기에도 기계류 투자 부진과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과 건축 부문 모두 증가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림 II-2]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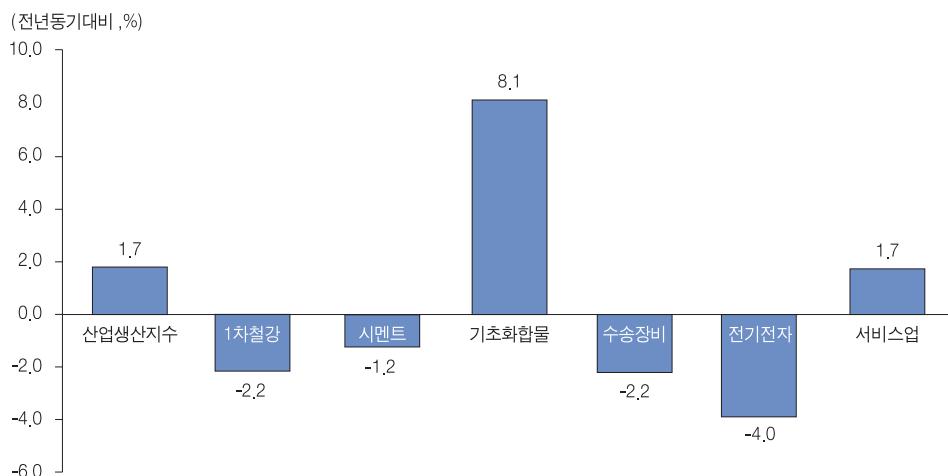
[그림 II-3] 물가상승률 추이



- 2013년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잠정 집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3%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3년 2분기 전산업기준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로
잠정 집계
 - 광업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8% 감소⁷⁾
 -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1차 철강, 시멘트의 생산지수는 각각 2.2%, 1.2% 감소하
였으나, 기초화합물은 8.1% 증가
 - 전력다소비 산업인 수송장비, 전기전자 산업은 각각 2.2%, 4.0% 감소
 - 수송장비 산업 생산지수는 전기대비 4.5%p 증가
 - 서비스 산업의 생산지수는 1.7% 증가

[그림 II-4] 4분기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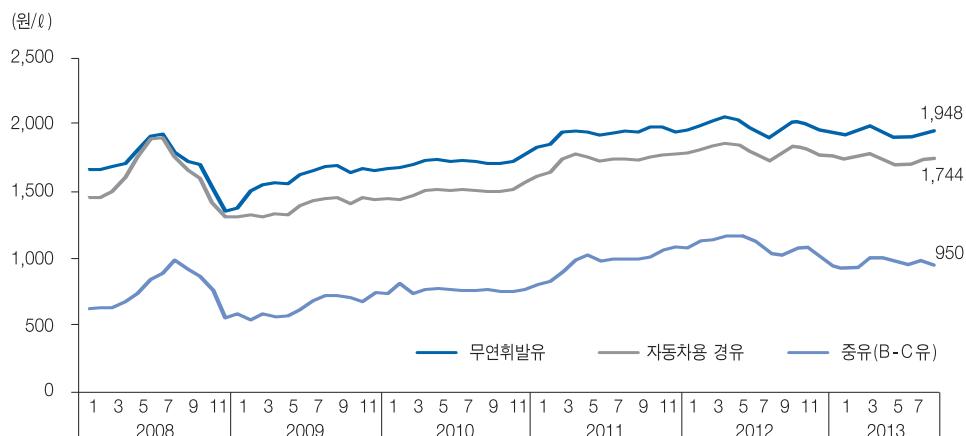


- 2분기 에너지가격 동향
 - 휘발유와 수송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원, 1,71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6.2% 하락
 - 전년동기대비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국내 원유도입 단가 하락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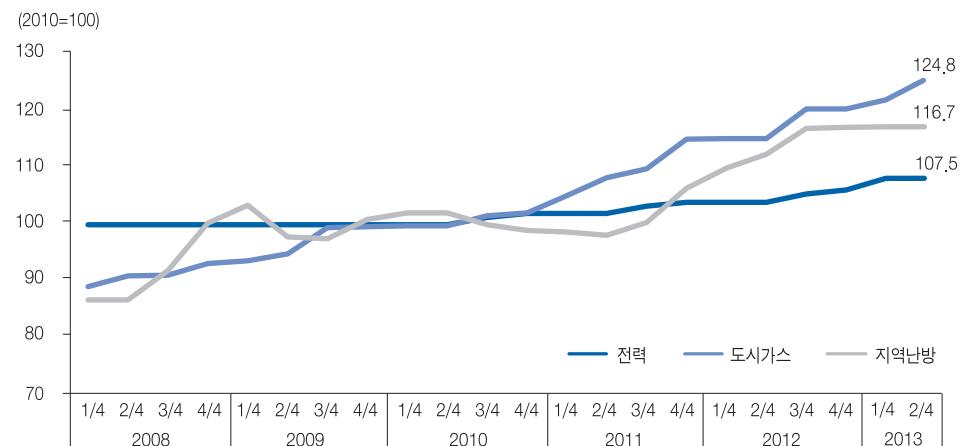
7) KEEI 에너지수급동향(2013, No.19)

- 중유(B-C유) 가격은 리터당 973원으로 15.7% 하락
 - 원유도입단가 하락과 수송부문 B-C유 소비가 19.1% 하락
- 주요 에너지 제품별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전력은 4.2%, 도시가스는 8.9%, 지역난방은 4.4% 상승

[그림 II-5] 석유제품 가격 추이



[그림 II-6] 주요 에너지 가격지수 추이



〈표 II-1〉 주요 경제 지표 동향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GDP (조원)	254.2 (4.2)	272.4 (3.5)	270.3 (3.6)	285.2 (3.3)	261.5 (2.8)	278.9 (2.3)	274.5 (1.6)	289.4 (1.5)	265.3 (1.5)	285.3 (2.3)
민간소비 (조원)	139.2 (3.2)	136.4 (3.1)	139.1 (2.1)	139.8 (1.2)	141.0 (1.3)	137.8 (1.0)	141.5 (1.7)	143.5 (2.7)	143.0 (1.5)	140.2 (1.7)
설비투자 (조원)	25.7 (10.5)	28.9 (7.7)	27.8 (1.1)	27.0 (-3.6)	28.0 (8.8)	27.9 (-3.5)	25.9 (-6.9)	25.6 (-5.2)	24.6 (-11.9)	26.4 (-5.1)
건설투자 (조원)	28.2 (-10.0)	39.2 (-4.7)	36.6 (-3.6)	42.2 (-1.7)	28.1 (-0.4)	38.0 (-3.1)	36.4 (-0.3)	40.5 (-4.2)	28.7 (2.4)	40.7 (7.1)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102.8 (3.8)	103.6 (4.0)	104.7 (4.3)	104.9 (4.0)	105.9 (3.0)	106.1 (2.4)	106.4 (1.6)	106.7 (1.7)	107.4 (1.4)	107.3 (1.1)
생산자물가지수 (2010=100)	105.2 (7.5)	107.1 (7.6)	107.3 (6.7)	107.1 (5.1)	108.3 (2.9)	108.1 (0.9)	107.2 (-0.2)	106.2 (-0.9)	106.3 (-1.9)	105.7 (-2.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표 II-2〉 산업생산지수 추이 (2005=100)

구 분	2011				2012				2013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산업 생산지수	99.8 (3.9)	104.0 (3.1)	101.7 (3.8)	107.7 (2.6)	102.4 (2.6)	104.6 (0.6)	102.4 (0.7)	107.8 (0.1)	102.6 (0.2)	106.4 (1.7)
1차 철강	105.8 (10.4)	111.6 (7.5)	103.6 (8.4)	110.5 (5.4)	107.9 (2.0)	112.0 (0.4)	107.5 (3.8)	106.5 (-3.6)	104.1 (-3.5)	109.5 (-2.2)
시멘트	80.0 (3.0)	116.1 (-2.8)	98.5 (5.0)	116.3 (6.6)	83.4 (4.3)	122.7 (5.7)	95.9 (-2.6)	102.4 (-12.0)	84.7 (1.6)	121.2 (-1.2)
기초화합물	101.0 (3.2)	98.6 (0.3)	104.4 (2.7)	102.5 (0.4)	103.6 (2.6)	103.9 (5.4)	110.6 (5.9)	106.6 (4.0)	109.4 (5.6)	112.3 (8.1)
수송장비	106.7 (17.0)	117.0 (13.4)	110.4 (15.2)	124.4 (13.4)	118.1 (10.7)	120.8 (3.2)	97.6 (-11.6)	121.6 (-2.3)	113.6 (-3.8)	118.1 (-2.2)
전기전자	96.3 (5.2)	103.3 (2.5)	99.3 (-0.6)	104.7 (-2.9)	92.6 (-3.8)	101.6 (-1.6)	99.3 (0.0)	100.9 (-3.6)	93.2 (0.6)	97.5 (-4.0)
서비스업	99.5 (2.8)	103.4 (2.9)	103.2 (4.5)	106.7 (2.8)	102.1 (2.6)	104.9 (1.5)	104.7 (1.5)	107.6 (0.8)	102.9 (0.8)	106.7 (1.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표 II-3〉 국내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석유제품 (원/ℓ)	휘발유	1,871 (11.9)	1,935 (12.2)	1,941 (13.3)	1,967 (13.8)	1,991 (6.4)	2,021 (4.4)	1,966 (1.3)	1,966 (-0.1)	1,955 (-1.8)	1,917 (-5.1)
	수송경유	1,676 (15.3)	1,767 (16.8)	1,753 (16.1)	1,784 (16.7)	1,829 (9.1)	1,828 (3.4)	1,783 (1.7)	1,783 (-0.1)	1,767 (-3.4)	1,715 (-6.2)
	LPG	1,069 (10.7)	1,086 (13.4)	1,088 (15.7)	1,064 (12.4)	1,099 (2.8)	1,154 (6.3)	1,057 (-2.8)	1,098 (3.2)	1,096 (-0.2)	1,065 (-7.7)
	중유 (B-C유)	847 (11.5)	1,000 (29.9)	999 (31.5)	1,056 (40.0)	1,124 (32.6)	1,155 (15.6)	1,042 (4.3)	1,014 (-4.0)	952 (-15.3)	973 (-15.7)
도시가스 (원/MJ)	가정용	17.2 (5.6)	17.8 (9.1)	18.0 (8.7)	19.0 (13.9)	19.0 (10.4)	19.0 (6.9)	20.1 (11.2)	20.1 (5.7)	20.4 (7.2)	20.9 (10.2)
	상업용	18.7 (4.8)	19.0 (6.3)	19.1 (7.0)	20.1 (12.3)	20.1 (7.2)	20.1 (5.7)	20.9 (9.1)	20.9 (4.0)	21.2 (5.4)	21.7 (8.2)
	산업용	15.7 (3.3)	16.4 (8.2)	16.8 (9.2)	17.7 (16.9)	17.7 (13.1)	17.7 (8.0)	18.5 (10.5)	18.7 (5.6)	19.3 (9.2)	19.4 (9.4)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전력	101.2 (2.0)	101.2 (2.0)	102.5 (2.0)	103.2 (2.0)	103.2 (2.0)	103.2 (2.0)	104.7 (2.1)	105.4 (2.1)	107.5 (4.2)	107.5 (4.2)
	도시가스	104.4 (5.5)	107.6 (8.7)	109.2 (8.3)	114.5 (13.0)	114.6 (9.8)	114.6 (6.5)	119.9 (9.8)	119.9 (4.7)	121.5 (6.0)	124.8 (8.9)
	지역난방	97.9 (-3.4)	97.3 (-3.9)	99.6 (0.4)	105.7 (7.6)	109.3 (11.6)	111.8 (14.9)	116.4 (16.9)	116.6 (10.3)	116.7 (6.8)	116.7 (4.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에너지통계월보, 국가통계포털

2

에너지 수요 전망 전제

- 에너지수요 전망의 경제성장을 전제는 2013년에 2.8%, 2014년에 3.8%로 설정
 - 지난 6월 에너지수요전망에서 사용한 2013년 경제성장을 전제치(2.6%)보다 0.2%p 상향 조정
 - 본 보고서의 경제성장 전제는 한국은행의 ‘2013~14년 경제전망’(2013.10)의 전망치를 이용

〈표 II-4〉 경제성장을 전제

구 분	2013	2013			2014e		
	연간	상반기p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0	1.9	3.6	2.8	3.9	3.7	3.8

주: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s, CDD),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s, HDD) 등 전망에 활용된 기온변수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기온정보를 이용
 - 전망 기간에는 평균 기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II-5〉 기온변수 전제

구 분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5	1.0	5.5	12.2	18.3	22.6	24.6	25.9	21.5	15.3	8.0	-0.5
냉방도일 (CDD)	0	0	0	3	39	138	206	246	111	10	0	0
난방도일 (HDD)	634	482	389	177	29	1	0	0	6	92	302	571

주: 냉방(난방)도일은 일평균 기온이 기준치(18°C) 보다 높을(낮을) 경우, 일평균 기온과 기준치와의 차이를 의미함. 월별 냉·난방도일은 해당 월의 일별 도일을 합한 것임.

- 기준 국제유가는 2013년에 배럴당 \$104.73으로 2012년 국제유가 109.03 \$/bbl보다 3.9% 정도 하락할 전망
 -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을 전망 전제로 사용
 - 2013년 국제유가 전망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2013.7)에서 전망한 기준유가를 이용하였으며, 전망된 국제유가는 국내 석유제품 및 도시가스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구하는데 사용
 - 2013년 하반기 가격은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면서 4분기에 낮아질 전망
 - 2014년 원유가는 공급과잉이 지속하지만, 중동정세 불안과 과잉물량의 축소로 소폭 하락할 전망

〈표 II-6〉 국제원유가 전망

(단위: US\$/Bbl)

시나리오	2012년 연평균	2013년					2014년 연평균
		1/4	2/4	3/4	4/4e	연평균	
기준유가	109.03	108.09	100.76	106.09	102.94	104.73	102.3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2013.7

주: 2013년 3분기까지는 실적치 사용

2014년 연평균은 상계서 2014년 상반기 유가전망 평균을 사용

제 3 장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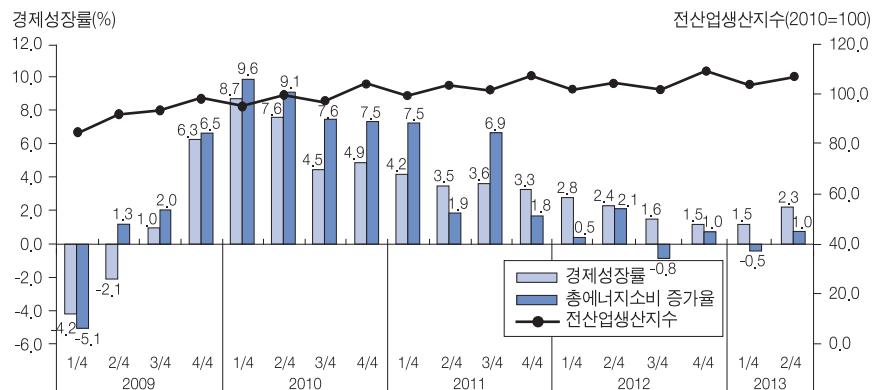
1. 총에너지
2. 석유제품 수요 전망
3. 전력
4. LNG 및 도시가스
5. 석탄
6.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7. 특징 및 시사점

1 | 총에너지

가. 소비 동향

-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138.9백만 TOE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 이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지속된 결과
 - * 국내 경제성장률(%) : ('11) 3.7 ⇒ ('12) 2.0 ⇒ ('13 상반기) 1.9
 - * 총에너지 증가율(%) : ('11) 4.5 ⇒ ('12) 2.1⁸⁾ ⇒ ('13 상반기) 0.2
 - 원료용 에너지(비에너지유, 원료탄)를 제외할 경우 소비증가율은 전년 대비 0.5% 증가
 - 일차에너지에서 원료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에 26%에 달함.

[그림III-1] 최근 경제 및 총에너지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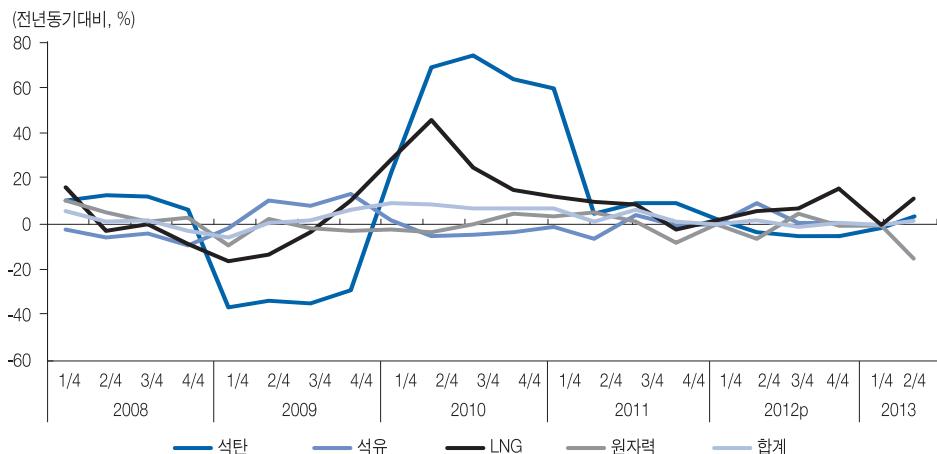
8) 총에너지는 2011년과 동일열량을 적용할 경우 2.1%, 개정 에너지열량환산 기준(2011.12.30.)을 적용할 경우 0.7% 증가

● 상반기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 석유는 원료용 납사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난방용 석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
 - 석유화학산업의 경기둔화와 설비에 대한 정기보수로 납사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 비에너지유를 제외한 연료유 및 LPG 소비는 고유가로 인한 산업부문과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연료대체 지속으로 3.0% 감소
 -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에서는 고유가로 석유가 도시가스 등 타에너지원으로 대체되어 5.4% 감소
 - 산업부문은 납사 대체제로서 LPG 수요가 급증(21.4%)한 반면, 납사 소비 증가세 둔화로 1.2% 증가
 - 수송부문은 승용차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정체
 - 총 석유소비에서 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에 46.7%를 기록
- 석탄은 산업용이 3.1% 감소한 반면, 발전용은 4.7% 증가. 총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
 - 경기둔화로 제철용(-5.1%)과 시멘트 생산용(-7.4%)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발전용 소비 증가(4.9%)로 전체 유연탄 소비는 1.6% 증가
 - 무연탄은 가정 · 상업용 소비가 5.7% 증가하고, 소비 비중이 큰 산업용 소비가 5.9% 증가함에 따라 전체 무연탄 소비는 4.1% 증가
- 천연가스(LNG)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발전용 및 도시가스 제조용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감.
 - 발전용은 일부 원전 가동중단으로 5.2% 증가
 - 도시가스는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로 가정 · 상업용 소비가 크게(11.1%) 증가하고, 산업부문에서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대체가 지속되어 소비가 크게(13.4%)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
- 원자력은 케이블 문제로 일부 원자력발전소(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정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8.0%) 하락

- 전력은 산업 생산활동 둔화 및 전력수요관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증가율이 전년동기 비해 크게 하락한 1.1%를 기록
 -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소비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각각 0.7%, 0.2%의 증가 하는 데 그침.
 - 산업용 전력소비는 산업생산 활동 부진의 영향으로 1.8% 증가에 그쳐, 상반기 경제성장률(1.9%)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일차에너지의 원별 소비비중은 석유(37.5%), 석탄(28.7%), LNG(20.1%), 원자력(10.4%)의 순

[그림III-2] 일차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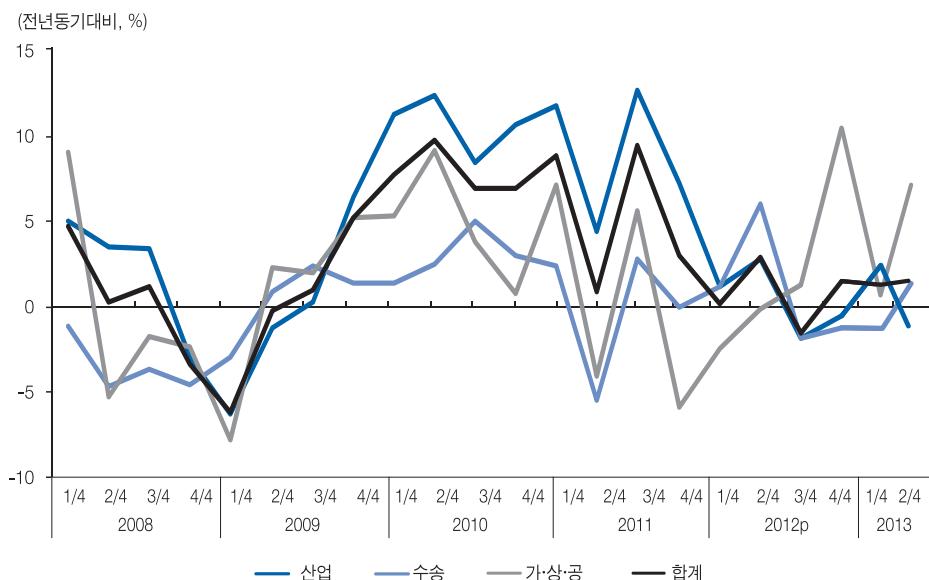
● 상반기 부문별 에너지 소비 동향

-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 가정 · 상업 · 공공 부문은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로 크게(5.2%)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로 인해 산업부문(0.7%)과 수송부문(0.1%)은 보합세를 시현
 - 원료용을 제외할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2%로 다소 상승함. 이는 납사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료탄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경기둔화에 따른 산업활동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침.

- 도시가스와 원료용 납사가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
- 원료용을 제외할 경우 동 부문 에너지 소비는 2.6% 증가
- 원별 증가율은 전력 1.8%, 도시가스 13.4%, 석탄 -3.1%, 석유 1.2%를 기록
- 수송부문은 승용차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기록(전년 동기대비 0.1% 증가)
 - 제품별로는 휘발유 및 경유는 각각 2.4%, 4.6% 증가하였으나, 중유, LPG 제품의 증가율은 각각 -25.1%, -3.0%, -0.6%로 감소
- 가정 · 상업 · 공공 부문은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에 그침.
 - 원별로는 도시가스가 크게(11.1%) 증가한 반면, 석유는 연료대체로 5.4% 감소하였음. 전력은 0.3%, 열에너지 1.7% 증가하는 데 그침.

[그림III-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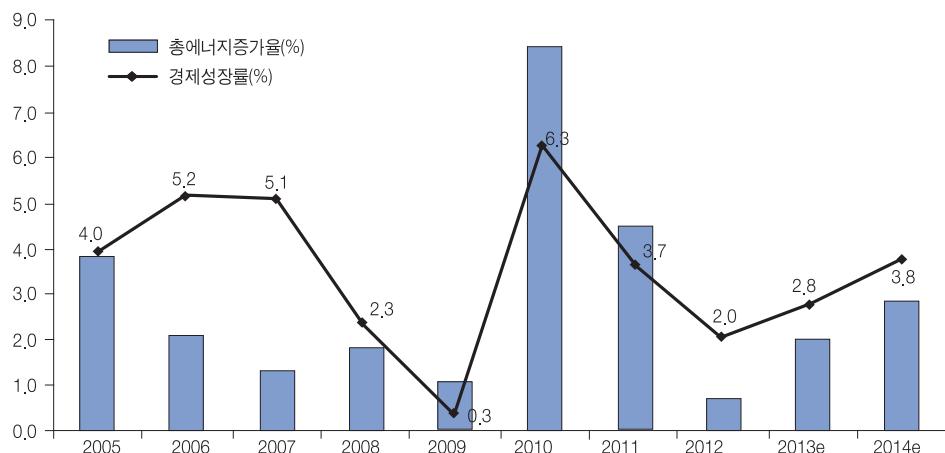
나. 수요 전망

- 2013년 총에너지 소비는 하반기에 2.3%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281.2백만 TOE를 기록할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 ('12) 2.0 ⇒ ('13 상반기) 1.9 ⇒ ('13 하반기) 3.6

- 경기호전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에너지소비가 다소 증가
- 올해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로 원자력은 전년보다 크게(-4.6%) 감소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 증가로 LNG는 크게(5.4%) 증가할 전망
 - 반면 LNG는 신규 원전의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발전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수요가 비교적 크게 증가
- 경기가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는 2.8% 증가
 - * 국내 경제성장률(%) : ('12) 2.0 ⇒ ('13) 2.8 ⇒ ('14) 3.8
 - 총에너지수요 증가는 원자력(10.9%)과 LNG(3.7%)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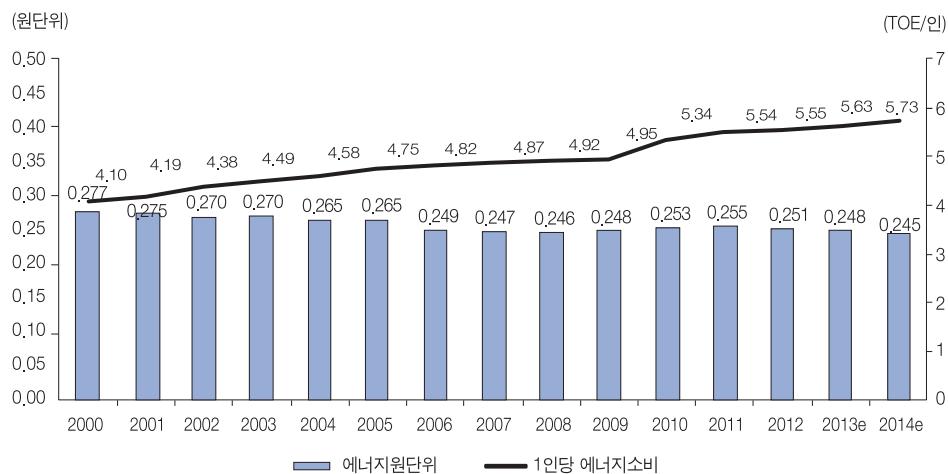
[그림III-4]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 증가율



● 주요 에너지지표 전망

-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2012년에 0.251에서 2013년에 0.248, 2014년에 0.245로 다소 개선될 전망
- 1인당 에너지소비는 2012년에 5.55 TOE에서 2013년에 5.63 TOE, 2014년에 5.73 TOE로 증가할 전망
 - 소득증가로 각종 전기 및 전자기기, 냉방, 난방, 자동차 수요 등 소비를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그림III-5] 에너지원단위 및 일인당 소비 전망



●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석탄수요는 금년에 전년대비 1.4%, 내년에 1.3% 증가할 전망
 - 산업용은 경기호전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용 수요는 내년 연말 신규 석탄발전소(영홍화력 5호기)의 준공에 따라 소폭 상승할 전망
 - 유연탄은 지난해에 1.7% 감소하였으나, 금년과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각각 1.0%, 1.2% 증가할 전망
 - 무연탄은 소비비중이 높은 산업용이 금년에 반등하여 5.7% 증가하고, 내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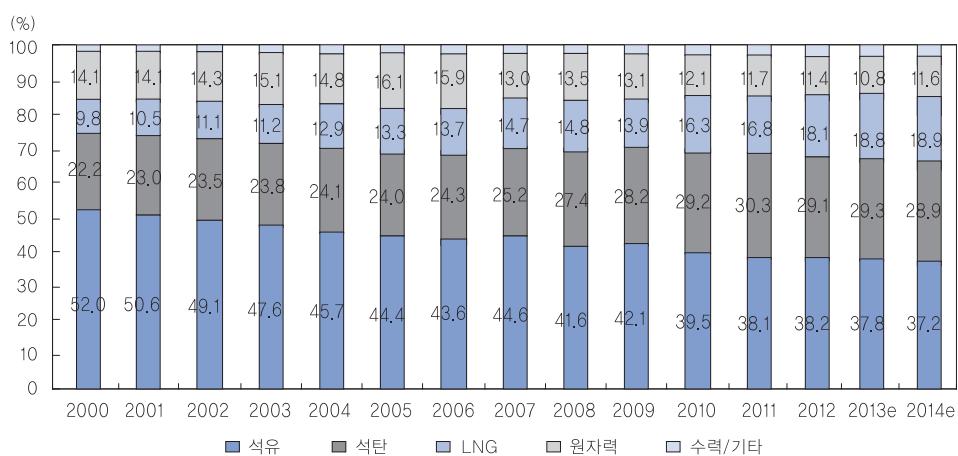
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석유 수요는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내년에는 소폭(1.1%) 증가할 전망. 납사 및 수송 연료유가 수요 증가를 견인
 -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 및 국제 항공수송 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송용 석유 수요는 금년에 전년 대비 1.3%, 내년에 1.6% 증가할 전망
 - 산업부문에서는 납사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동부문 총 석유수요 증가세도 하락할 전망
 - 가정 · 상업 · 공공부문 석유 수요는 고유가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되어 금년에도 전년 대비 5.8% 감소할 전망이나, 내년에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천연가스 수요는 금년에도 높은(5.4%) 증가세가 지속되나, 내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3.7%)될 전망
 - 금년에는 케이블 문제로 인한 원전 발전량 감소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8.5%) 증가할 것이나,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1.1% 증가) 수준을 보일 전망
 - 연료대체 현상 지속으로 도시가스 수요는 비교적 크게 증가
 - 최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금년에 전년대비 크게(1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가정 · 상업 · 공공부문 수요는 상반기의 추운 날씨로 금년에는 비교적 크게(5.4%) 증가하나,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
- 전력 수요는 경기회복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1.8%, 내년에 3.7% 증가할 전망
 - 산업생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 수요는 올해 전년대비 2.6%, 내년에 4.6% 증가할 전망
 - 가정용 전력 수요는 지난해에는 여름철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저효과로 1.3% 증가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3.1% 증가할 전망
 - 상업용 전력 수요는 올해에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로 원자력은 올해 크게(-4.6%) 감소하나, 내년에 재가동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10.9%) 증가할 전망
-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는 석유 및 석탄 비중은 하락하고 천연가스 비중은 상승할 전망
 - 석유의 비중은 2002년에 50%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 38.2%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37.8%, 2014년에는 37.2%를 기록할 전망
 - 석탄의 비중은 산업용 원료탄 소비와 발전용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2001년 23.1%에서 2011년 30.3%까지 확대되었으나,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석탄 발전설비 증설이 없고 산업용 수요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3년에 29.3%, 2014년에 28.9%로 낮아질 전망
 - 발전용 및 도시가스 제조용 천연가스 수요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그 비중이 2012년에는 18.1%를 차지하였으며, 발전용 수요가 급증한 2013년에 18.8%로 상승하고, 2014년에도 18.9%로 상승할 전망임.

[그림III-6] 에너지원별 비중 추이



- 원자력의 비중은 2005년 16.0%를 기록한 이후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락세를 보임. 2013년에는 설비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하락으로 비중이 10.8%로 하락하나, 2014년에는 11.6%로 상승할 전망임.

●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

- 경기회복으로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3년에 1.8%, 2014년에는 2.5%의 증가할 전망

- 산업부문은 경기회복으로 전력과 도시가스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

* 전력 수요 전망(%) : ('12) 2.9 ⇒ ('13) 2.6 ⇒ ('13) 4.6

* 도시가스 수요 전망(%) : ('12) 15.0 ⇒ ('13) 12.4 ⇒ ('13) 10.1

- 납사 수요 증가세는 크게 둔화

* 납사 수요 전망(%) : ('12) 8.3 ⇒ ('13) 0.6 ⇒ ('13) 1.6

- 수송부문은 고유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량의 대형화,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해 휘발유와 항공유를 중심으로 2013년에 전년대비 1.5%, 2014년에는 2.0% 증가할 전망

- 휘발유 및 경유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LPG수요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휘발유 수요 전망(%) : ('12) 3.2 ⇒ ('13) 2.6 ⇒ ('13) 2.1

* 경유 수요 전망(%) : ('12) 1.3 ⇒ ('13) 3.8 ⇒ ('13) 1.3

* LPG 수요 전망(%) : ('12) -2.9 ⇒ ('13) -0.5 ⇒ ('13) -1.1

-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석유와 무연탄은 감소할 전망

* 전력 수요 전망(%) : ('12) 2.2 ⇒ ('13) 0.9 ⇒ ('13) 2.6

* 도시가스 수요 전망(%) : ('12) 6.0 ⇒ ('13) 5.4 ⇒ ('1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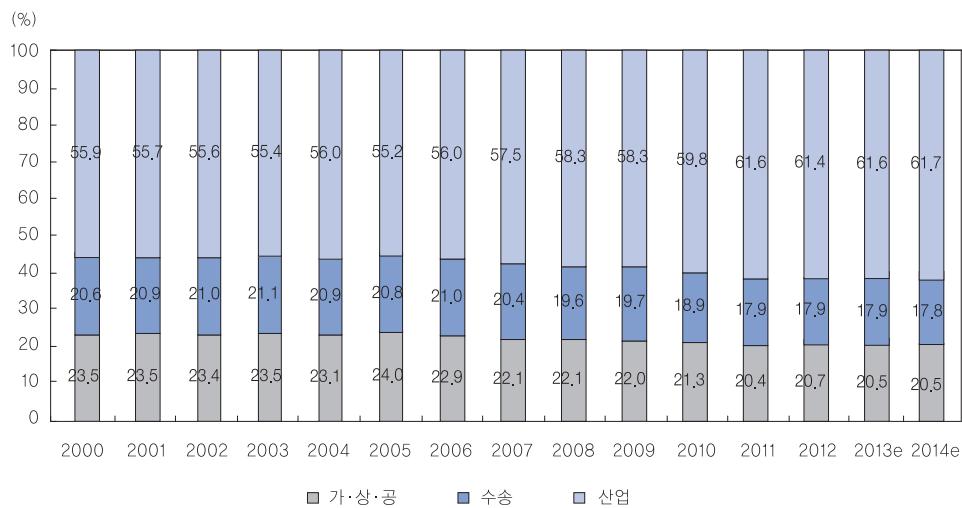
* 석유 수요 전망(%) : ('12) -5.0 ⇒ ('13) -5.8 ⇒ ('13) -1.7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조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비중은 2005년까지 55%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속적

- 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 61.6%, 2014년에 61.7% 수준에 이를 전망임. 산업부문의 비중 증가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조립금속업의 높은 성장세에 기인
- 수송부문 소비 점유율은 2006년 21.0%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7.9%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17.8%로 소폭 하락할 전망임. 수송부문의 소비 점유율 하락은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증가속도가 타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결과임.
 - 2005년 이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2년에 20.7%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 20.6%, 2014년에 20.5%로 하락할 전망임. 난방 및 냉방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가정·상업·공공부문은 동계 및 하계 기온 변동에 따라 소비 점유율이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음.

[그림III-7]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



〈표III-1〉 1차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구 분	2012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석탄 (백만 톤) -원료탄제외	32.6 (3.1)	29.3 (-2.5)	32.9 (-4.3)	33.2 (-4.5)	128.0 (-2.1)	32.7 (0.2)	30.4 (3.6)	63.1 (1.8)	66.8 (1.1)	129.9 (1.4)	131.5 (1.3)
	24.8 (2.6)	21.5 (-3.3)	25.0 (-3.3)	25.2 (-5.8)	96.6 (-2.6)	25.0 (0.7)	23.3 (8.0)	48.2 (4.1)	50.6 (0.8)	98.8 (2.4)	100.2 (1.4)
석유 (백만 bbl) -비에너지 제외	209.3 (1.2)	201.2 (9.8)	204.2 (1.5)	213.1 (1.2)	827.6 (3.2)	205.3 (-1.9)	201.2 (0.0)	406.5 (-1.0)	423.0 (1.4)	829.6 (0.2)	839.0 (1.1)
	108.6 (-2.0)	98.5 (8.0)	99.7 (-2.4)	105.5 (-3.6)	412.1 (-0.4)	100.9 (-7.1)	99.9 (1.4)	200.8 (-3.0)	208.6 (1.7)	409.4 (-0.7)	413.0 (0.9)
LNG (백만 톤)	12.7 (2.8)	7.9 (6.5)	6.7 (7.9)	11.1 (16.3)	38.5 (8.1)	12.7 (-0.4)	8.7 (10.1)	21.4 (3.6)	19.2 (7.5)	40.6 (5.4)	42.1 (3.7)
수력 (TWh)	1.2 (-20.3)	1.8 (-2.2)	2.4 (-27.1)	1.5 (30.1)	7.1 (-11.5)	1.7 (40.3)	2.0 (7.5)	3.7 (20.7)	4.5 (12.8)	8.2 (16.3)	7.8 (-4.3)
원자력 (TWh)	37.7 (0.6)	36.4 (-5.6)	40.3 (5.4)	36.0 (0.1)	150.3 (0.1)	37.0 (-1.7)	31.1 (-14.5)	68.2 (-8.0)	75.2 (-1.3)	143.4 (-4.6)	159.1 (10.9)
기타 (백만 TOE)	1.8 (7.0)	1.8 (9.3)	1.7 (8.8)	1.9 (8.5)	7.2 (8.4)	1.9 (9.3)	1.9 (9.3)	3.9 (9.3)	3.8 (5.3)	7.7 (7.3)	8.1 (5.3)
총에너지 (백만 TOE)	74.0 (0.5)	64.6 (2.1)	66.4 (-0.8)	72.6 (1.0)	277.6 (0.7)	73.6 (-0.5)	65.3 (1.0)	138.9 (0.2)	142.3 (2.3)	281.2 (1.3)	289.2 (2.8)
총에너지 -원료용제외	56.0 (0.1)	46.4 (1.1)	47.9 (-0.5)	53.6 (0.9)	203.9 (0.4)	55.3 (-1.3)	47.7 (2.8)	102.9 (0.5)	104.2 (2.6)	207.1 (1.6)	214.2 (3.4)

주 : 1) 2012년 전망수치는 신열량 환산기준(2011.12.30. 개정)을 적용한 결과임. 구열량 환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 증가(원료용 제외 시, 1.2%)

2)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표III-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구 분	2012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산업 (백만 TOE)	31.6 (1.1)	31.2 (2.6)	31.6 (-1.9)	32.8 (-0.6)	127.2 (0.3)	32.2 (1.8)	31.1 (-0.4)	63.3 (0.7)	66.5 (3.4)	129.8 (2.0)	133.5 (2.8)
-원료용제외	13.6 (0.0)	13.0 (-0.5)	13.0 (-2.6)	13.8 (-3.4)	53.5 (-1.6)	13.8 (1.5)	13.5 (3.7)	27.3 (2.6)	28.4 (6.0)	55.7 (4.3)	58.5 (5.0)
수송 (백만 TOE)	8.9 (1.1)	9.3 (5.7)	9.6 (-1.8)	9.4 (-1.2)	37.2 (0.8)	8.8 (-0.8)	9.4 (1.0)	18.2 (0.1)	19.5 (2.8)	37.7 (1.5)	38.5 (2.0)
가·상·공 (백만 TOE)	15.1 (-2.4)	8.3 (-0.2)	7.5 (1.2)	12.0 (10.0)	42.9 (1.9)	15.3 (0.9)	8.9 (7.5)	24.2 (3.2)	19.2 (-1.3)	43.4 (1.2)	44.2 (2.0)
합계 (백만 TOE)	55.6 (0.1)	48.8 (2.7)	48.7 (-1.5)	54.2 (1.4)	207.3 (0.7)	56.2 (1.1)	49.4 (1.2)	105.6 (1.2)	105.3 (2.4)	210.9 (1.8)	216.2 (2.5)
합계 -원료용제외	37.6 (-0.7)	30.5 (1.4)	30.1 (-1.4)	35.2 (1.4)	133.5 (0.1)	37.9 (0.7)	31.7 (3.9)	69.6 (2.2)	67.2 (2.9)	136.8 (2.5)	141.2 (3.2)
도시가스 (십억 m ³)	8.7 (2.2)	4.5 (3.0)	3.6 (12.3)	7.0 (24.8)	23.8 (9.7)	9.5 (9.6)	5.2 (16.1)	14.8 (11.9)	11.0 (3.7)	25.7 (8.2)	27.2 (5.6)
석유 (백만 bbl)	199.1 (1.5)	192.9 (7.3)	198.1 (0.3)	206.5 (0.5)	796.6 (2.3)	198.5 (-0.3)	194.7 (1.0)	393.2 (0.3)	411.3 (1.7)	804.6 (1.0)	813.7 (1.1)
-비에너지유 제외	98.4 (-1.8)	90.1 (2.8)	93.7 (-4.8)	98.8 (-5.3)	381.1 (-2.5)	94.1 (-4.5)	93.4 (3.6)	187.5 (-0.6)	196.9 (2.3)	384.4 (0.9)	387.7 (0.9)
전력 (TWh)	124.7 (2.7)	111.5 (2.3)	115.9 (3.0)	114.4 (2.0)	466.6 (2.5)	125.0 (0.2)	113.8 (2.1)	238.9 (1.1)	236.1 (2.5)	474.9 (1.8)	492.4 (3.7)
석탄 (백만톤)	12.0 (0.8)	11.7 (-1.9)	11.9 (-7.8)	12.7 (-3.5)	48.3 (-3.2)	11.9 (-0.6)	11.1 (-5.1)	23.0 (-2.9)	25.2 (2.3)	48.2 (-0.2)	48.8 (1.3)
-원로탄제외	4.2 (-5.8)	4.0 (-5.3)	4.0 (-8.9)	4.8 (-8.9)	16.8 (-7.3)	4.2 (1.4)	4.0 (1.4)	8.2 (1.4)	8.9 (2.6)	17.2 (2.0)	17.5 (1.9)
열·기타 (천 TOE)	2,390 (5.5)	1,763 (6.2)	1,642 (6.0)	2,278 (10.5)	8,074 (7.1)	2,518 (5.4)	1,942 (10.1)	4,460 (7.4)	4,062 (3.6)	8,522 (5.6)	8,865 (4.0)

주 : 1) 2012년 전망수치는 신열량 환산기준(2011.12.30. 개정)을 적용한 결과임. 구열량 환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 증가

2) e는 전망치,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 | 석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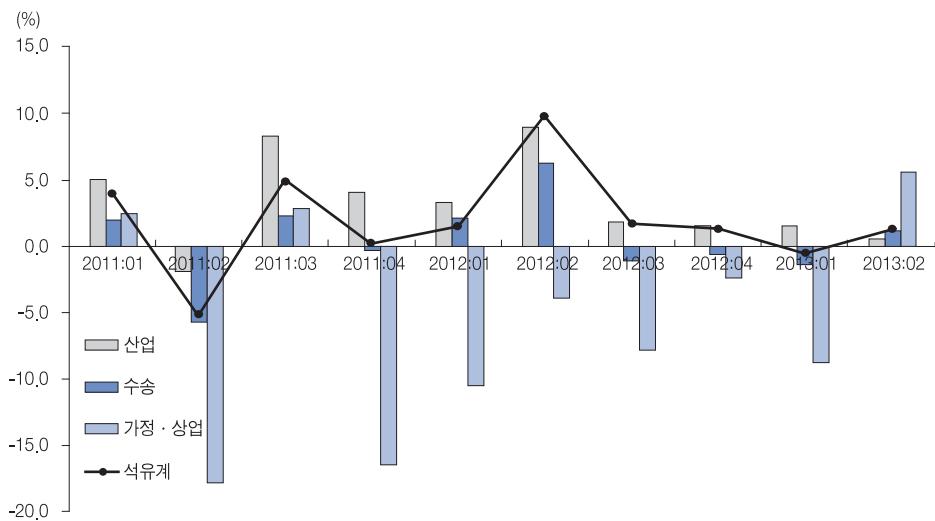
가. 소비부문별 동향

- 2013년 상반기 석유제품소비는 원료용 납사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정·상업·공공부문 석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393.2백만 배럴을 기록
 - 산업부문 석유소비는 상반기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폭 증가(1.2%)하였으나, 납사를 포함한 원료용 소비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1.5% 증가
 - 연료용 석유소비는 납사 가격 급등으로 에틸렌 생산을 위한 대체재인 LPG 사용을 증가하여 상승하였지만, 원료용 석유소비는 증가 추세가 주춤
 - * 상반기 석유화학산업 업황 부진 및 석유화학시설 정기보수로 납사의 증가 추세가 주춤
 - * 연료유 소비 추이 : ('12.상반기) -7.0% ⇒ ('12.하반기) -21.1% ⇒ ('13.상반기) 1.5%
 - * 원료유 소비 추이 : ('12.상반기) 8.2% ⇒ ('12.하반기) 6.0% ⇒ ('13.상반기) 1.1%
 - 수송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등유(-26.4%)와 중유(-25.1%)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휘발유(2.4%)와 경유(4.6%)는 증가하여 수송부문 소비 증가율은 0% 기록
 - 휘발유와 경유소비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상반기 소비 증가
 - LPG 차량등록 대수의 지속적 감소로 LPG 소비는 3.0% 감소
 - 수출입 실적 부진으로 수출 및 연안 물동량이 감소하여 선박 연료인 B-C유 소비 감소
 -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는 난방 및 취사 연료가 석유에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력 등으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석유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 특히 지난 '11년 7월 보일러등유가 폐지되어 난방용 등유소비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

* 가·상·공 석유소비 추이 : ('12.상반기) -7.0% ⇒ ('12.하반기) -2.7% ⇒ ('13.상반기) -5.4%

- 전환부문 석유소비는 정부의 전력수요관리 정책의 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27.9% 감소
 - 전력수요 증가에도 LNG 대비 높은 발전단가로 격차가 지속되어 유류 발전량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전력수요 관리정책 등으로 발전용 석유소비가 대폭 감소

[그림III-8] 석유 제품별 수요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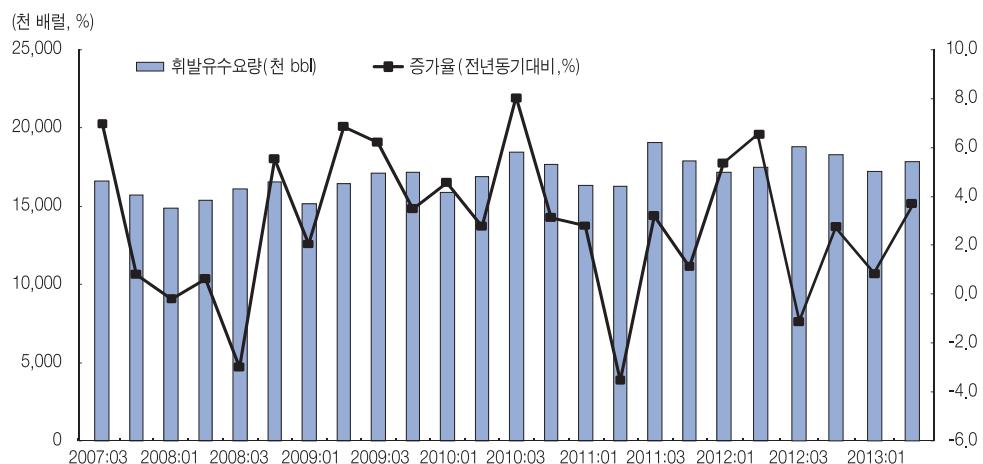
주: 총석유소비 증가율은 전환부문을 포함한 석유 총에너지수요를 의미

나. 주요제품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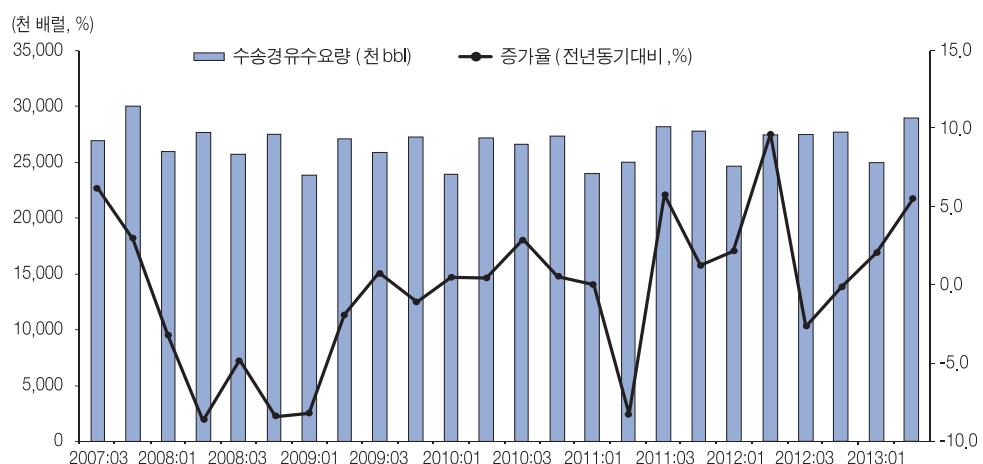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주요 석유제품별 소비동향을 보면 차량연료용인 휘발유, 경유의 소비가 2012년 하반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짐.
 -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 소비는 주유소 제품가격의 하락,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 4.8% 증가

- 휘발유 소비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3.5%)하였으며,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2.1%)하여 강보합세를 보임.
- 수송용 경유소비는 경기둔화세 지속으로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유가격이 비교적 크게 하락(-4.8%)하였으며 차량등록 대수도 빠르게 증가(4.9%)하여 2012년 상반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그림III-9] 휘발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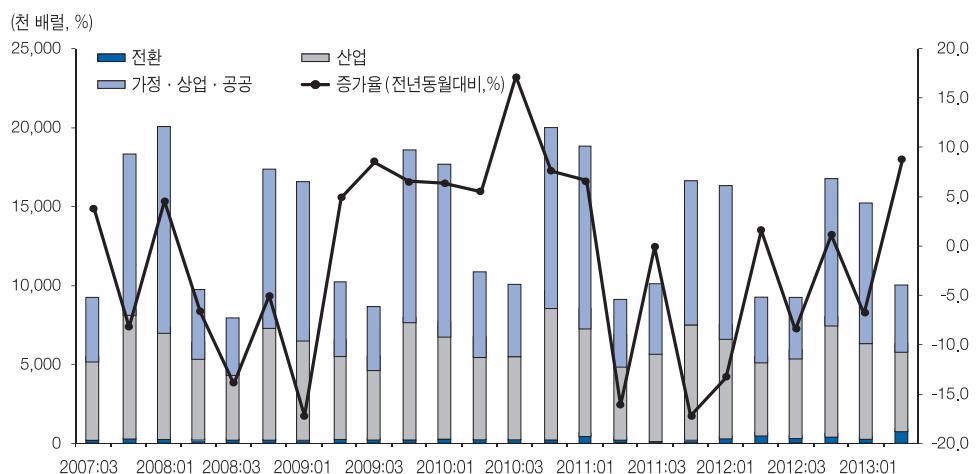


[그림III-10] 수송용 경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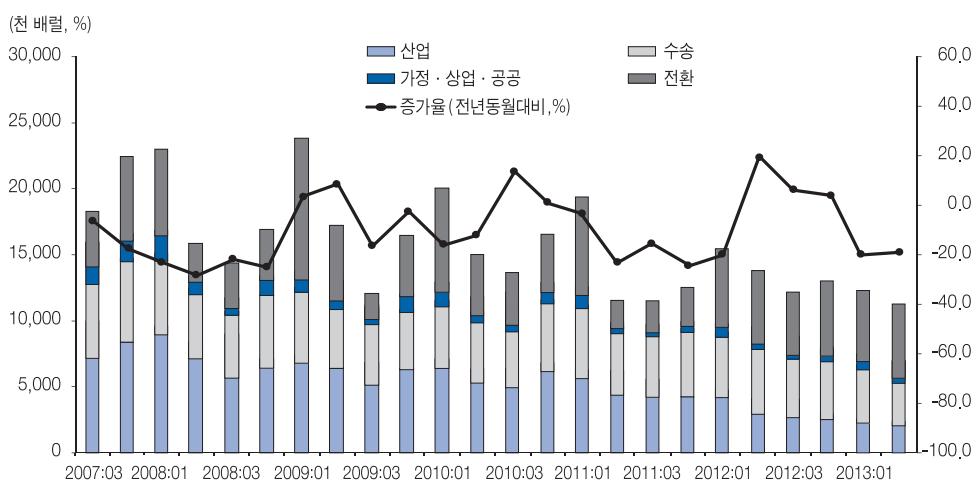


- 수송용 경유를 제외한 등 · 경유소비는 난방에너지가 석유에서 도시가스, 지역 난방, 전력 등으로 지속 대체되어 가고, 발전용 연료유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
 - 특히 2011년 7월 이후 세금탈루, 수송용으로의 불법사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

[그림III-11] 등 · 경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그림III-12] 중유 소비 및 증가율 추이



기 위해 보일러등유가 폐지(실내등유는 지속 판매)됨에 따라 난방용 등·경유 소비의 감소 속도가 가속

-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으로 발전용 등·경유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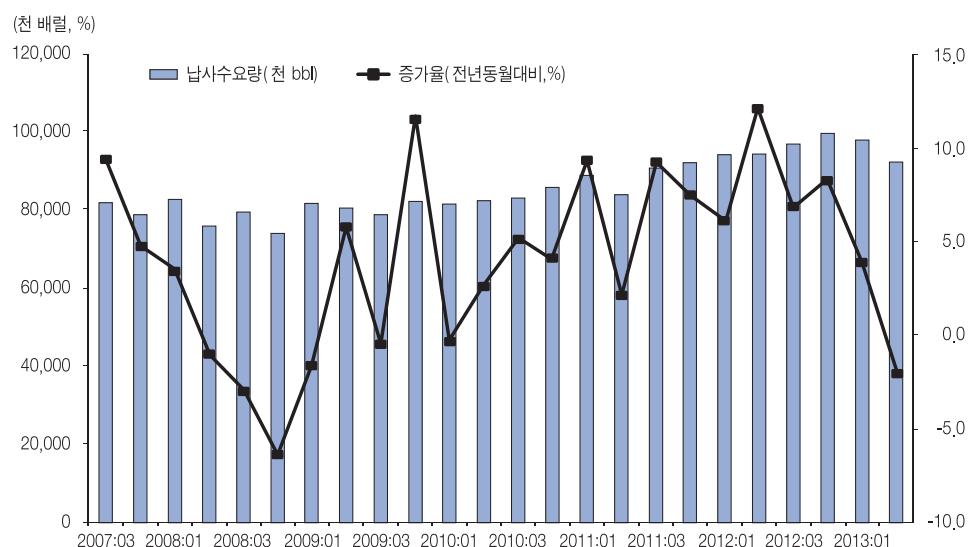
-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중유 소비는 -29.0%로 급격히 감소

- 최근 전력수요 급증과 원전 가동중단으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발전용 소비도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5.1%의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발전용을 제외한 중유소비는 29.0% 감소

- 2012년 전체 석유제품소비 증가를 견인하였던 납사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 하며 급증세가 급격히 둔화

- 납사소비 증가세 둔화는 대(對)중국 수출수요의 둔화,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률 감소, 중동지역 석유화학 시설 증설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증가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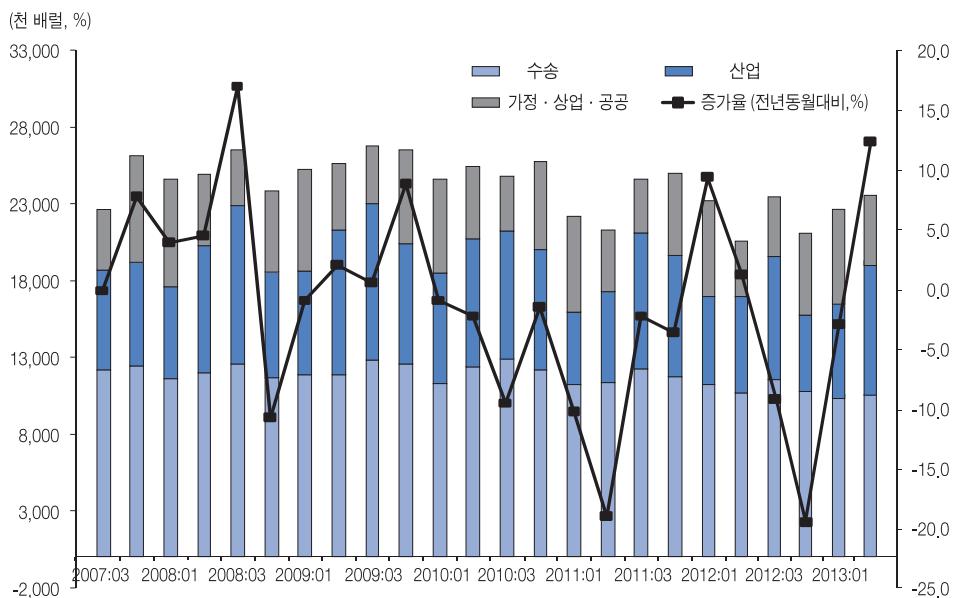
[그림III-13] 납사 소비 및 증가율 추이



- LPG 소비는 납사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연료용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수송용 LPG소비는 1990년대 후반에 급속히 보급되었던 LPG차량의 노후화로 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3.3% 감소
- 산업공정의 연·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LPG는 납사가격 상승으로 납사대체 용 사용이 증가하여 21.4% 증가
- 난방·취사용 LPG 소비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으로 대체가 지속되고, 도시 가스 열량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LPG 소비도 급격히 감소하여 2.9% 하락

[그림III-14] LPG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다. 수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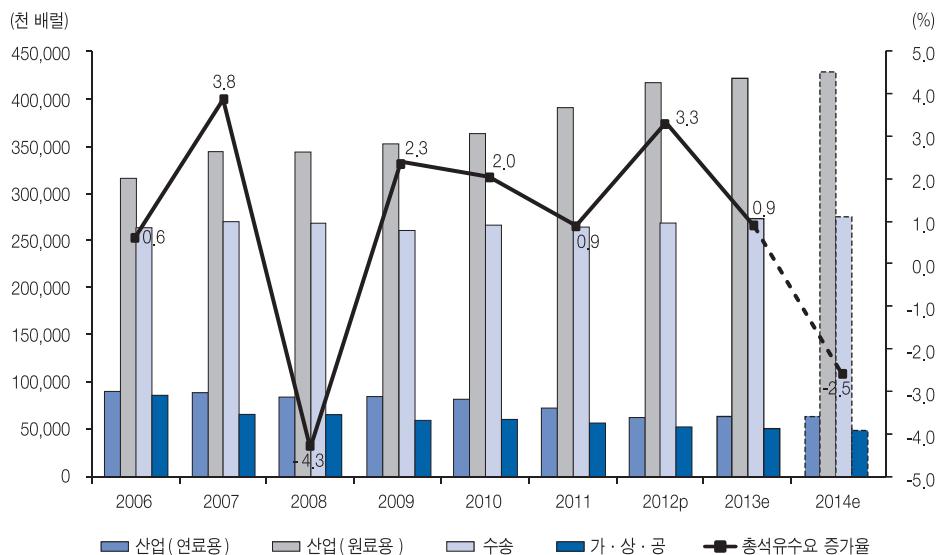
- 2013년 일차에너지 석유수요는 난방용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산업원료 및 수송용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0.9% 상승한 835.0 백만 배럴을 기록할 전망
 - 2012년 원료용 소비의 급증세로 3.7% 증가했던 산업부문은 2013년 하반기 경

제성장률 3.7%의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상저하고 양상을 나타내며 1.6%를 기록할 전망

- 2013년 상반기 납사소비 증가세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아시아 역내 신규 설비 증설이 많고, 중국 경기 둔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3년 납사 수요 증가는 0.6%에 그칠 전망
- 산업연료용 석유소비는 상반기 납사 대체용 LPG 소비 증가와 기저효과로 4.9% 증가할 전망
- 수송부문은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 전망과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차량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전망
 - 대체 휴일제 등으로 여객 수요 및 항공화물의 수요가 증가하여 항공유 수요가 상저하고의 양상을 나타내며 2.1%를 기록할 전망
 - 휴가기간 도로 교통량 증가, 차량등록 대수 증가,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각각 2.5%와 3.0%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석유수요는 난방 · 취사용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타에너지원으로 지속 대체되어 감에 따라 5.8% 감소할 전망
 - 2012년 7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 도입으로 열량조절용 LPG소비가 급감하여 LPG 소비는 3.3%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⁹⁾
- 발전용 수요는 기저발전설비의 증설, 국제 중유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9.5% 감소할 전망
 - 하지만 기저발전설비의 가동률 저하,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변 등의 상황 발생 시 발전용 석유수요의 변동은 매우 유동적
- 2014년 석유 수요는 산업과 수송부문이 각각 1.2%, 1.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 증가율을 보일 전망.

9) 열량범위제란 소비자에게 미리 정해진 열량범위(44.4MJ/Nm³~41.0MJ/Nm³) 내에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소비자가 사용한 열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열량을 42.28MJ/Nm³으로 함.

[그림III-15] 소비 부문별 석유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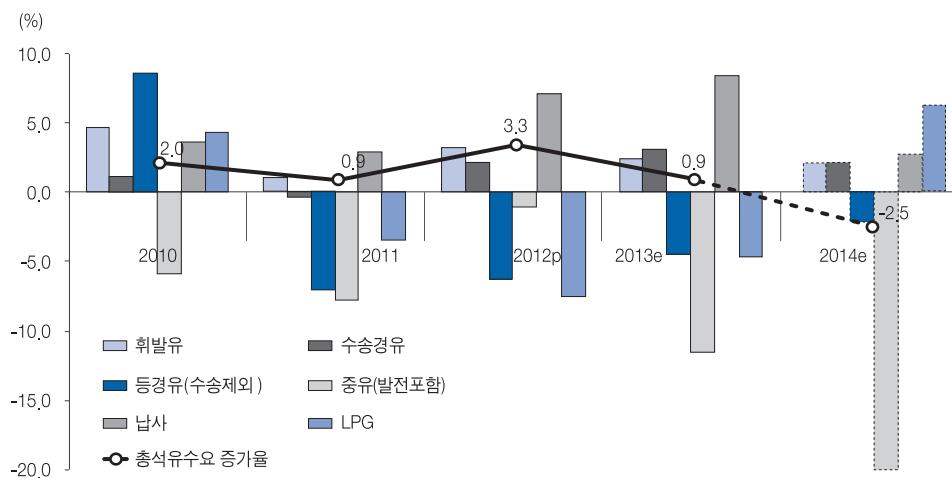
주: 총석유소비 증가율은 전환부문을 포함한 석유 일차 수요를 의미

- 2013년 석유수요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등·경유와 중유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휘발유, 수송경유수요는 증가할 전망
 - 등·경유 수요는 난방 및 발전용 수요의 감소로 4.5%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 중유수요는 2012년 발전용 소비가 증가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다시금 11.5%의 빠른 감소세를 보일 전망
 - 휘발유 수요는 산업, 가·상·공부문의 일부 비(非)수송용 수요¹⁰⁾가 감소하지만 수송부문의 증가로 인해 2.4% 증가할 전망
 - 2013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승용 차량의 대형화, 주행거리 증가, 정부의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10) 4행정 사이클 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소형 기계, 시멘트 절단기 등 산업용 기계설비, 도료의 용제 등

- 경유소비는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차량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2012년 1.6%에서 2013년 2.7%로 증가될 전망
- 상반기 납사가격 상승으로 LPG로의 대체와 하반기 석유화학산업 회복 지연 전망으로 납사소비 증가는 2013년 0.6%로 크게 둔화될 전망
- 2013년 LPG소비는 상반기 에틸렌 생산을 위한 LPG 수요 증가로 2013년 6.3% 증가할 전망
 - 하지만 다른 부문은 열량조절용 수요 감소로 전체소비는 감소할 전망
- 2014년 석유제품별 소비에서 수송용 휘발유(2.0%), 경유(1.3%)가 증가하지만, 2013년 증가세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
 - 중유소비는 계속 감소(-12.1%)할 전망임. 수송용 중유소비(6.8%)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III-16] 석유 제품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



주 : 총석유소비 증가율은 전환부문을 포함한 석유 일차 수요를 의미

〈표III-3〉 부문별 석유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구 분	2012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수 송	63.8 (2.0)	66.4 (6.3)	68.9 (-1.1)	67.5 (-0.6)	266.6 (1.5)	62.9 (-1.4)	67.1 (1.1)	130.0 (-0.1)	139.7 (2.4)	269.7 (1.2)	274.0 (1.6)
산 업	117.2 (3.3)	117.0 (9.0)	120.2 (1.8)	122.8 (1.6)	477.1 (3.8)	119.0 (1.6)	117.6 (0.5)	236.6 (1.1)	247.5 (1.9)	484.1 (1.5)	489.9 (1.2)
- 연료	16.5 (-5.4)	14.3 (-6.9)	15.7 (-17.0)	15.2 (-23.7)	61.6 (-13.9)	14.6 (-11.5)	16.3 (14.2)	30.9 (0.4)	33.1 (7.4)	64.0 (3.9)	63.9 (-0.1)
- 비에너지유	100.7 (4.9)	102.7 (11.6)	104.5 (5.4)	107.6 (6.5)	415.5 (7.1)	104.4 (3.7)	101.3 (-1.3)	205.8 (1.1)	214.4 (1.1)	420.2 (1.1)	426.0 (1.4)
가정상업 공공	18.2 (-10.6)	9.4 (-4.0)	9.1 (-7.8)	16.2 (-2.4)	53.0 (-6.5)	16.6 (-8.8)	10.0 (5.6)	26.6 (-3.9)	24.1 (-4.6)	50.7 (-4.2)	49.9 (-1.7)
전 환	10.1 (-2.3)	8.3 (141.3)	6.0 (65.5)	6.5 (30.8)	30.9 (38.2)	9.7 (-3.9)	8.4 (0.8)	18.0 (-1.8)	12.4 (-1.0)	30.5 (-1.4)	0.0 (-100.0)
석 유 계	209.2 (1.3)	201.2 (9.8)	204.1 (1.5)	213.0 (1.2)	827.5 (3.3)	208.1 (-0.5)	203.1 (1.0)	411.2 (0.2)	423.8 (1.6)	835.0 (0.9)	813.7 (-2.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표III-4〉 제품별 석유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구 分	2012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휘발유	17.2 (5.3)	17.3 (6.3)	18.9 (-1.1)	18.4 (2.8)	71.8 (3.1)	17.3 (0.9)	18.0 (3.9)	35.3 (2.4)	38.2 (2.5)	73.5 (2.4)	75.0 (2.0)
수송경유	24.5 (2.1)	27.4 (9.7)	27.4 (-2.7)	27.7 (-0.2)	107.0 (2.0)	25.0 (2.0)	28.9 (5.6)	53.9 (3.9)	56.3 (2.2)	110.2 (3.0)	111.6 (1.3)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16.4 (-13.3)	9.3 (1.8)	9.3 (-8.4)	16.8 (1.2)	51.7 (-5.5)	15.3 (-6.7)	10.1 (8.9)	25.3 (-1.1)	24.0 (-7.8)	49.4 (-4.5)	47.0 (-4.9)
중 유 (발전용 포함)	15.4 (-20.4)	13.8 (19.3)	12.2 (6.0)	13.0 (3.4)	54.4 (-1.1)	12.3 (-20.1)	11.2 (-18.5)	23.6 (-19.3)	24.5 (-2.5)	48.1 (-11.5)	26.6 (-44.6)
납 사	94.1 (6.1)	94.1 (12.2)	96.8 (6.8)	99.6 (8.3)	384.6 (8.3)	97.7 (3.9)	92.2 (-2.1)	189.9 (0.9)	197.0 (0.3)	386.9 (0.6)	393.0 (1.6)
LPG (발전용 포함)	27.0 (9.7)	22.8 (2.1)	24.1 (-5.7)	21.6 (-19.0)	95.5 (-3.7)	26.1 (-3.4)	25.6 (12.3)	51.7 (3.8)	49.8 (8.9)	101.5 (6.2)	94.6 (-6.7)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와 실내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3 |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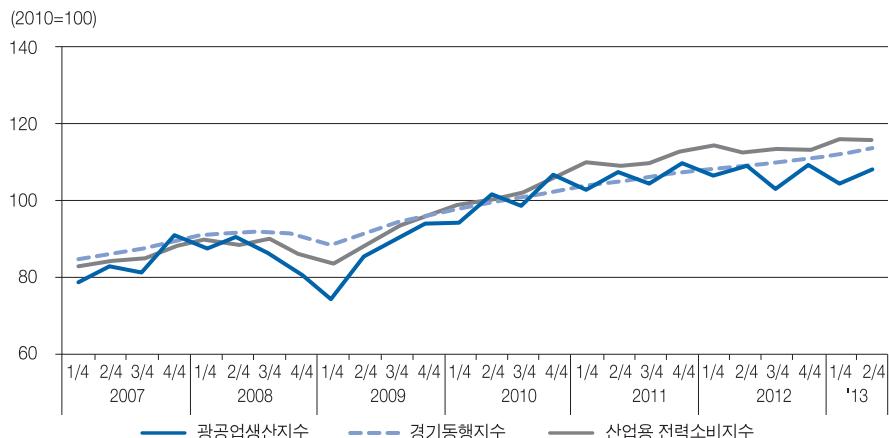
가. 소비 동향

- 2013년 상반기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
 - 전력 소비는 2012년에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 상반기에도 동기 경제성장률(1.9%)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산업 활동 부진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강도 높은 전력수요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해오던 상업용 수요가 정체됨.

- 부문별 전력 소비
 - 2009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용 전력 소비는 2012년 전년 대비 2.9% 증가한데 이어 2013년 상반기에도 1.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산업용 전력 소비는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늘어왔으나, 올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
 - 현재의 경기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산업용 전력 소비는 2007년 이후 경기동행종합지수¹¹⁾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단, 2009~2010년 기간에는 철강 등 전력 다소비업종의 대규모 설비증설의 영향으로 전력 소비가 경기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

11) 동 지수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별(생산, 소비, 고용, 금융, 무역, 투자 등)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한 종합경기지표임(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III-17] 최근 경기 동향과 산업용 전력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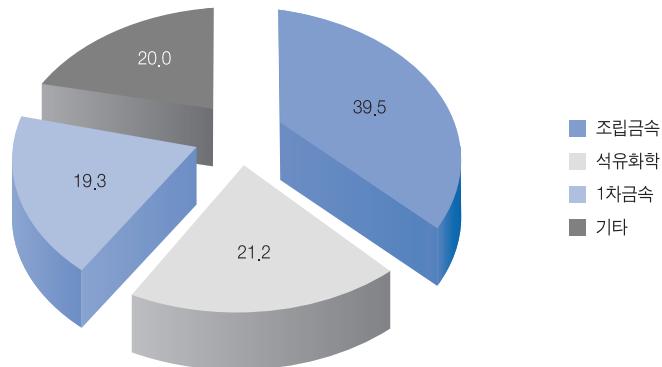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portal/korea>)

- 2013년 상반기 제조업, 농림어업 및 광업의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 9.7%, -18.2%의 변동을 보임.
 - 조립금속업¹²⁾이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한 데 힘입어 상반기 제조업의 전력 소비가 소폭 증가
 - 조립금속업 중에서는 전력 다소비업종인 영상음향통신(3.0%), 기타 기계장비(3.5%), 자동차제조업(2.0%) 등이 소비 증가세를 보임. 조립금속업 내의 전력 소비 비중은 영상음향통신업(39.9%), 자동차제조업(18.6%), 기타 기계장비업(15.2%)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철강업이 포함된 1차 금속업의 전력 소비는 포스코(주) 광양 1고로 개수공사 착수(2013.2)에 따른 가동 정지와 세계적인 철강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조절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음.
 - 2013년 상반기 제조업의 총 전력 소비 중 조립금속업, 석유화학업, 1차금속업 등 전력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0%에 달함.

12)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기기, 전기기기, 영상음향통신, 자동차제조 등 8개 업종을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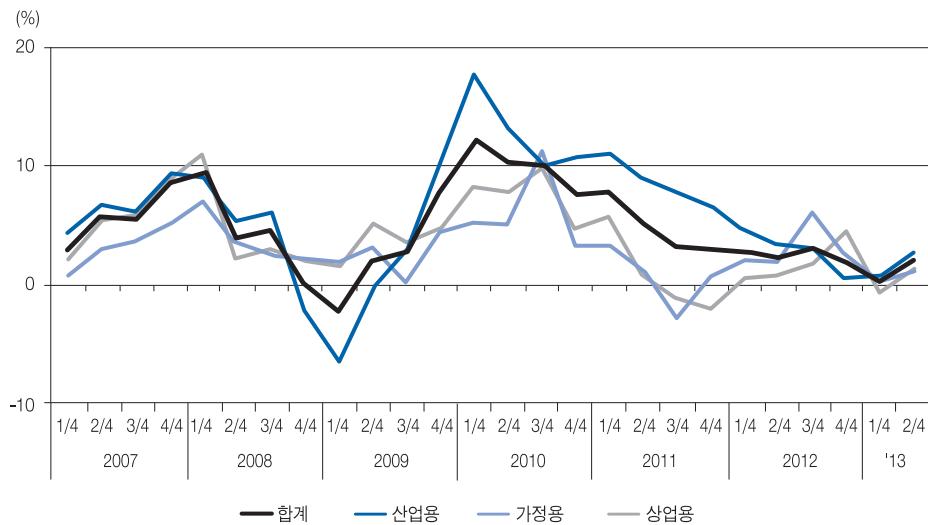
[그림III-18] 2013년 1분기 업종별 제조업 전력 소비 비중(%)



- 2013년 상반기의 가정 및 상업용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0.7%, 0.2% 증가하는 데 그침.
 - 올 상반기에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정체된 것은 경기 부진에 기인
 - 6월부터 시작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¹³⁾도 상업용 전력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13) 원전 3기 정지로 인한 하계 공급력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됨. 주요 내용은 냉방온도 26°C제한, 냉방기 순차운행,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 금지 등임.

[그림III-19]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나. 수요 전망

- 전력 수요는 2013년 1.8%,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할 전망
 - 최근 몇 년간 수요 증가를 이끌어 온 산업용 수요가 2013년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6%로 둔화되겠으나, 2014년에는 4%대 중반으로 반등할 전망
 - *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 : ('12년) 0.9 → ('13년) 2.3 → ('14년) 6.1
 - *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율(%) : ('12년) 2.9 → ('13년) 2.6 → ('13년) 4.6
 - 상업용 전력 수요는 2013년에 전년 대비 0.7%, 2014년에는 2.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가정용 전력 수요도 2013년에 1.3%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2014년에는 3.1%로 올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전력 수요는 낮은 요금수준 지속, 계절용 전기사용 기자재 보급 확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주요 최종에너지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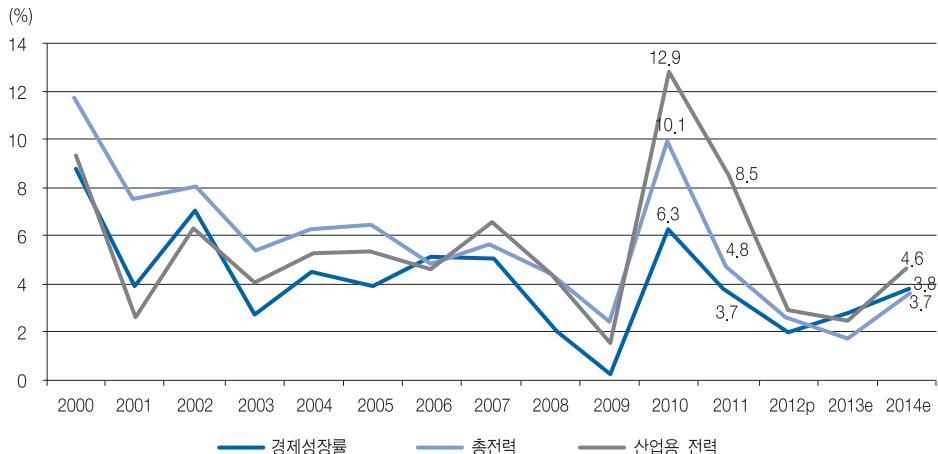
● 전력 수요와 경제 성장

- 전력 수요 증가율은 2006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13~2014년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총 전력 소비의 GDP 탄성치는 2010년 1.59에서 2011년 1.31, 2012년 1.24로 감소함. 2013년에는 0.64로 낮아졌다가 2014년에 0.97로 1에 근접할 전망
 -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용 소비의 GDP 탄성치는 2010년 2.03에서 2011년 2.32로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 1.40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1.21로 더욱 하락할 전망
- 산업용 소비의 증가 속도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는 2009년 이후 철강산업의 설비 증설¹⁴⁾과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경기호조로 확대되었다가 2011년 이후 설비증설 효과가 소멸되면서 다시 좁아지는 추세
 -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점도 산업용 소비의 빠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¹⁵⁾

14) 동부제철 전기로 제철공장(연산 300만 톤, '09년 7월), 현대제철 1·2고로(총 연산 800만 톤, '10년 1월 및 11월), 동국제강 후판 공장(연산 150만 톤, '10년 5월) 등

15) 가격효과에 의한 소비(신규 투자 등) 증가, 연료 대체(석유 → 전기), 자가발전 감소(전기 구매 증가)

[그림III-20] 경제성장률 및 전력수요 증가율 전망



〈표III-5〉 전력 수요의 GDP 탄성치

구 분	경제성장률 (%)	전력소비 증가율(%)		전력소비의 GDP 탄성치	
		총전력	산업용	총전력	산업용
2000~2010 연평균증가율	4.2	6.1	5.4	1.45	1.29
2011	3.7	4.8	8.5	1.31	2.32
2012p	2.0	2.5	2.9	1.24	1.40
2013e	2.8	1.8	2.6	0.64	0.91
2014e	3.8	3.7	4.6	0.97	1.21

주: e는 전망치

● 부문별 전력 수요

- 산업용 전력 수요는 2013년에 전년 대비 2.6%, 2014년에는 4.6% 증가할 전망임.
 - 2013~14년에도 조립금속업(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등)과 에너지다 소비업종(철강 및 석유화학)이 수요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관제철업의 신규 설비 증설(총 800여 만 톤)

의 영향으로 철강산업이 전력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

* 포스코 : 6월 광양 1고로 재가동(용량 200만여 톤 증설)¹⁶⁾, 12월 파이넥스 3고로(300만 톤)

신규 가동

* 현대제철 : 9월 제3고로(400만 톤) 신규 가동

- 상업용 전력 수요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1.0%, 2012년 1.7%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냄. 상업용 수요는 2013년에도 0.7%의 매우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201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4%로 높아질 전망임.
 - 2014년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능력이 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와 같은 강도 높은 수급관리정책이 시행될 경우, 상업용 수요증가율은 2%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III-21] 부문별 전력 수요 전망



- 가정용 전력 수요는 2013년에 동·하계의 온화한 날씨와 정부의 전기절약 캠페인 등으로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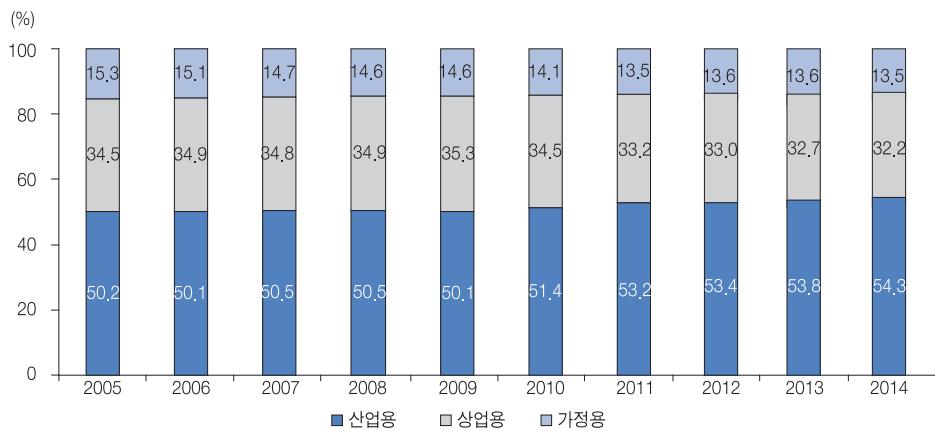
16) 연산 328만 톤에서 565만 톤으로 생산능력 확장

- 2014년에는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1%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임.

● 부문별 전력 수요 구조

- 총 전력수요 중 산업용의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산업용 비중은 2012년 53.4%에서 2013년 53.8%, 2014년 54.3%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임.
- 상업용 수요 비중은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2009년까지는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산업용 수요의 강세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가정용의 수요 비중은 2005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해 왔으며, 2014년에는 13.5% 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III-22]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 추이 및 전망



〈표III-6〉 전력 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TWh)

구 분	2012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가정용	16.5 (2.1)	14.9 (2.0)	16.7 (6.1)	15.4 (2.6)	63.5 (3.2)	16.6 (0.4)	15.1 (1.1)	31.7 (0.7)	32.7 (1.9)	64.4 (1.3)	66.4 (3.1)
상업용	45.3 (0.5)	34.7 (0.6)	37.1 (1.7)	36.8 (4.4)	153.9 (1.7)	45.0 (-0.7)	35.1 (1.4)	80.2 (0.2)	74.9 (1.3)	155.1 (0.7)	158.7 (2.4)
산업용	62.9 (4.6)	61.9 (3.4)	62.1 (3.0)	62.2 (0.5)	249.1 (2.9)	63.4 (0.8)	63.6 (2.7)	127.0 (1.8)	128.5 (3.3)	255.5 (2.6)	267.2 (4.6)
합계	124.7 (2.7)	111.5 (2.3)	115.9 (3.0)	114.4 (2.0)	466.6 (2.5)	125.0 (0.2)	113.8 (2.1)	238.9 (1.1)	236.1 (2.5)	474.9 (1.8)	492.4 (3.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상업용은 서비스업 및 공공용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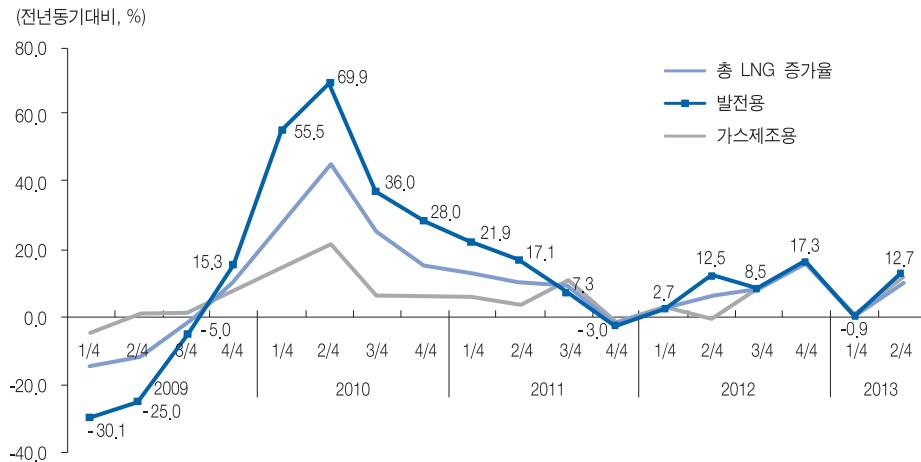
4 | LNG 및 도시가스

가. 소비 동향

- 2013년 상반기 LNG 소비는 발전용 소비와 가스제조용 소비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1,411천 톤을 기록
 - 가스제조용 LNG 소비는 도시가스 보급률(전국기준)이 75%를 넘어서며 포화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소비증가세를 보임.
 -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의 증가와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소비증가로 인해 상반기 가스제조용 소비는 증가세(4.3%)를 보임.
 - 도시가스 수요가수 보급률은 2012년 76.5%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였으며 2013년 수요가수는 2012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¹⁷⁾되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발전용 LNG 소비는 전력수요의 증가(1.1%)와 일부 원전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10,190천 톤을 기록
 - 첨두부하원으로 사용되는 발전용 LNG는 피크전력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냄

17) 자료: 도시가스 사업 편람 (2013)

[그림III-23] 용도별 LNG 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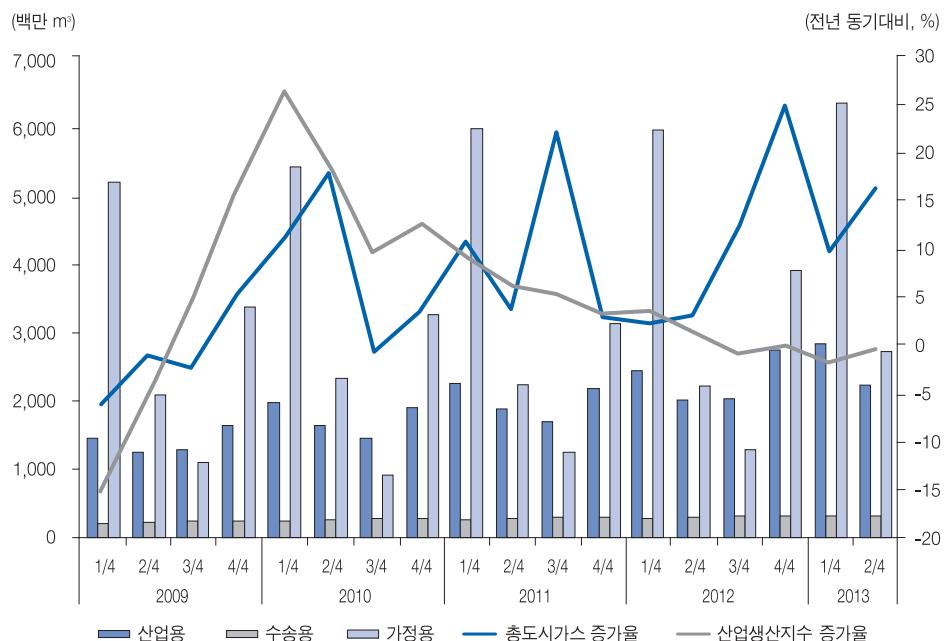


주: 데이터 레이블은 발전용 LNG 소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 2013년 상반기 도시가스 소비는 가정 · 상업용과 산업용 소비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한 14,758백만 m³를 기록
 - 가정 · 상업용 소비는 높은 증가세(11.1%)를 보이며 9,007백만 m³를 기록
 -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용 소비증가에 기인
 - 석유화학산업 생산의 증가로 인해 산업용 소비는 13.4% 증가한 5,010백만 m³를 기록하며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산업부문은 고유가 및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석유 등 타 에너지원으로부터 도시가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 산업부문 도시가스소비의 약 2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석유화학(36.2%)이 상반기 소비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비금속(22.0%) 및 기타제조(46.4%) 부문도 꾸준한 상승세

[그림III-24]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 추이



주: 산업생산지수는 원지수 기준 증가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상반기 수송용 도시가스 소비는 CNG 버스 확충사업¹⁸⁾에 따라 5.5% 증가한 609 m³를 기록
 - 2013년 2분기 CNG 차량 보급대수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39천대를 기록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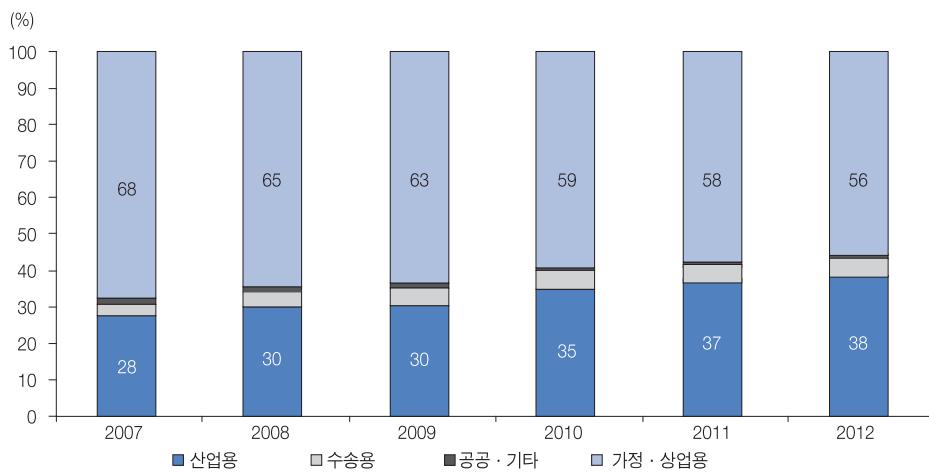
- 최근 도시가스 소비는 가정 · 상업용이 안정적인 소비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용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정 · 상업용 소비는 수요가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적 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기온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임.

18) CNG 버스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세제지원 등을 실시 중

19) 국토해양통계누리

- 반면, 산업공정의 연·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소비는 경제활동 수준과 에너지 원간 상대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도시가스의 산업용 소비 비중은 2007년 27.7%였으나 2012년에는 38.4%까지 증가
 - 2012년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9.7%) 중 5.5%는 산업용 소비증가에 기인

[그림III-25] 용도별 도시가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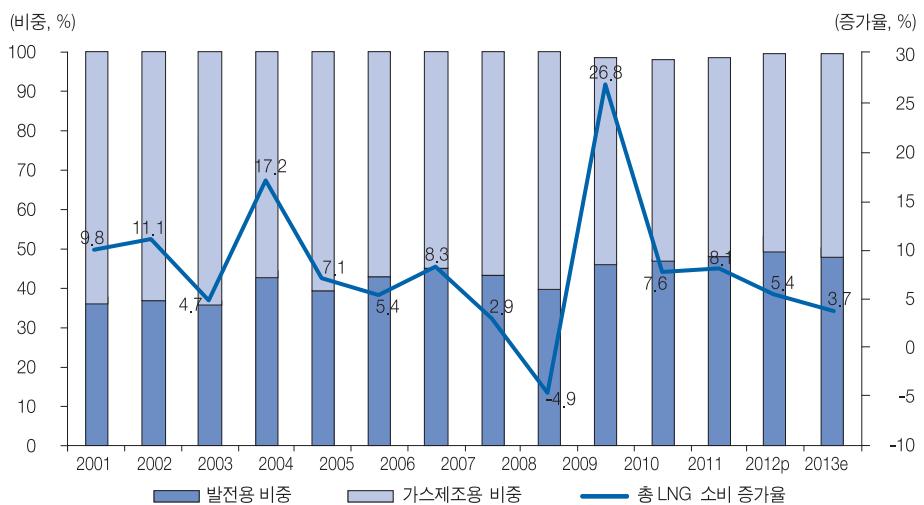
나. 수요 전망

- 2013년 하반기 LNG 수요는 발전용 및 가스제조용 수요가 모두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5.4% 증가하여 40,573천 톤을 기록할 전망
 - 2013년 하반기 발전용 수요는 일부 원전설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8.5% 증가하여 19,947천 톤을 기록할 전망임
 - 가스제조용 LNG 수요를 보면,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산업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하반기는 전년대비 3.8%, 연간으로는 4.1% 증가

하여 20,353천 톤을 기록할 전망

-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점차 포화상태에 다다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가수는 평균 4.8%의 완만하게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²⁰⁾.
- 2014년 발전용 소비는 석탄발전의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1.1%)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스제조용은 6.3%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III-26] 용도별 LNG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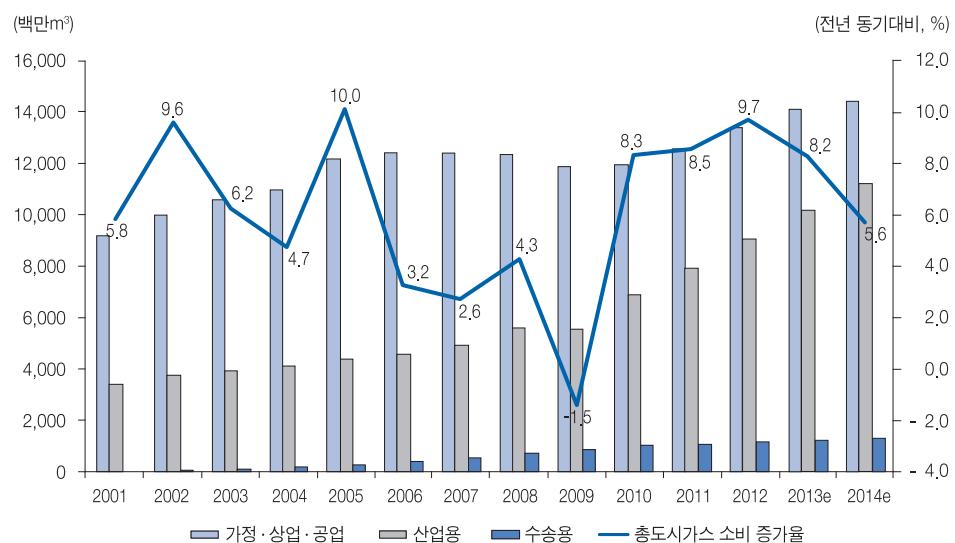


- 2001년 전체 LNG 소비의 31.1%에 불과하던 발전용 소비 비중은 2012년에는 약 47.8%로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49.1%를 기록할 전망
- 2001년 이후 용도별 LNG 소비구조는 발전용 소비의 비중 증감이 총 LNG 소비 증가율을 좌우하는 경향을 보임.
- 비교적 안정적 추세로 증가하는 가스 제조용 수요와 달리, 발전용 수요는 기저 발전설비의 가동률, 국제유가, 정부의 전력정책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크게 변동하여 총 LNG 소비변화를 주도

20) 자료: 도시가스 사업 편람 (2013)

- 도시가스 수요는 산업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8.2% 증가한 25,738백만 m³를 기록할 전망
 - 가정 · 상업용 수요는 난방수요가 높았던 2012년 하반기에 비해 평년기온을 전제할 때 3.5% 감소할 전망
 -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용 수요는 2013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11.4% 증가할 전망
 - CNG 버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수송용 수요는 CNG 버스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할 전망
 - 2014년 가정 · 상업용 수요는 평년 기온을 전제로 2.3% 증가할 전망이며, 산업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0.1% 증가할 전망

[그림III-27] 용도별 도시가스 수요 전망



〈표III-7〉 LNG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12					2013e					2014e
	1/4p	2/4p	3/4p	4/4e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가스제조용	7,257 (3.0)	3,384 (-0.5)	2,859 (9.7)	6,058 (16.5)	19,558 (7.1)	7,310 (0.7)	3,791 (12.1)	11,101 (4.3)	9,252 (3.8)	20,353 (4.1)	21,632 (6.3)
발전용	5,362 (2.7)	4,324 (12.5)	3,727 (8.5)	4,964 (17.3)	18,378 (9.8)	5,315 (-0.9)	4,875 (12.7)	10,190 (5.2)	9,757 (12.3)	19,947 (8.5)	20,159 (1.1)
LNG 계	12,749 (2.8)	7,914 (6.5)	6,725 (7.9)	11,097 (16.3)	38,485 (8.1)	12,700 (-0.4)	8,711 (10.1)	21,411 (3.6)	19,162 (7.5)	40,573 (5.4)	42,066 (3.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발전용에는 포스코(주), K-Power(주), GS-칼텍스(주)의 직도입량 추정치가 포함됨.

2.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용 투입량이 포함됨.

3. LNG 계에는 자체소비 및 가스제조 손실부분이 포함된 1차 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표III-8〉 도시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 m³)

구 分	2012					2013e					2014e
	1/4p	2/4p	3/4p	4/4e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가정·상업용	5,911 (-0.6)	2,197 (-1.1)	1,274 (3.2)	3,884 (24.8)	13,267 (6.0)	6,314 (6.8)	2,693 (22.5)	9,007 (11.1)	4,976 (-3.5)	13,983 (5.4)	14,309 (2.3)
산업용	2,417 (8.2)	2,002 (7.1)	2,010 (19.7)	2,706 (25.2)	9,135 (15.0)	2,793 (15.5)	2,218 (10.8)	5,010 (13.4)	5,256 (11.4)	10,266 (12.4)	11,298 (10.1)
수송용	282 (9.8)	295 (7.2)	314 (7.6)	309 (6.9)	1,200 (7.8)	298 (5.6)	311 (5.5)	609 (5.5)	662 (6.3)	1,272 (6.0)	1,356 (6.6)
도시가스 계	8,673 (2.2)	4,520 (3.0)	3,615 (12.3)	6,968 (24.8)	23,776 (9.7)	9,508 (9.6)	5,250 (16.1)	14,758 (11.9)	10,980 (3.7)	25,738 (8.2)	27,172 (5.6)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도시가스 계에서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됨

5 석탄

가.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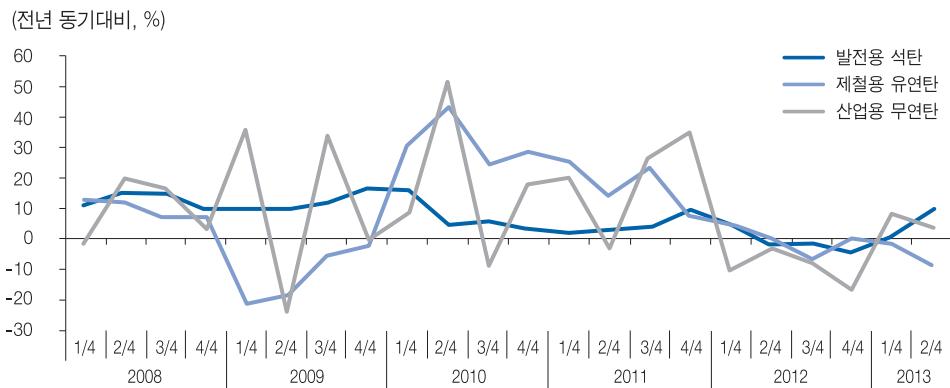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석탄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63.1백만 톤을 기록
 - 산업용 유연탄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석탄 소비의 63%를 점유하는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증가하며 전년의 감소세에서 반등

- 유연탄 소비는 발전용이 4.9% 증가하였으나, 제철 및 시멘트 산업에의 소비가 각각 5.1%, 7.4% 감소함에 따라 소폭 증가(1.6%)한 58.2백만 톤을 기록
 - 산업용 석탄소비의 대부분(83%)을 차지하는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상반기 동안 5.1% 감소한 14.8백만 톤을 기록
 - 제철용 유연탄소비는 건설, 조선 등 전방 수요산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2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중임.
 - 시멘트 산업의 유연탄 소비도 국내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7.4% 감소한 2.2백만 톤을 기록
 - 국내 건설수주액(경상금액 기준)은 2007년 127.9조 원을 기록한 이래 2012년 101.5조 원까지 감소. 이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환산 시 1999년의 수준임.
 -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원전 설비의 가동률 하락으로 4.9% 증가한 39.9백만 톤을 소비함.
 - 원자력설비는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케이블 검사 등으로 약 3,700 MW의 설비가 가동을 중지

- 무연탄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한 4.9백만 톤을 기록
 - 발전용 소비는 감소(-32.7%)하였으나 산업용 소비가 전년대비 5.9% 증가
 -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5.7% 증가한 0.7백만 톤을 기록

- 연탄제조용 가정 · 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예년보다 추운 일기가 5월까지 지속됨에 따라 2분기의 소비량이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

[그림III-28] 주요 석탄제품 소비 추이



나. 수요 전망

- 2013년 석탄수요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29.9백만 톤을 기록할 전망
 - 2013년 석탄수요는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발전용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비의 감소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
 - 발전용 석탄소비는 하반기에도 예방정비 및 부품검사로 인한 원전설비의 정지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 증가할 전망
 - 최종소비부문의 석탄수요를 제품별로 보면 유연탄과 무연탄수요는 각각 1.0%, 5.7% 증가할 전망
 - 제철산업의 2013년 하반기 유연탄 수요는 현대제철 3고로 준공²¹⁾과 포스코 광양 1고로 합리화²²⁾로 전년대비 2.1%의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 그러나 상반기

21) '13년 9월 준공, 용량 연산 4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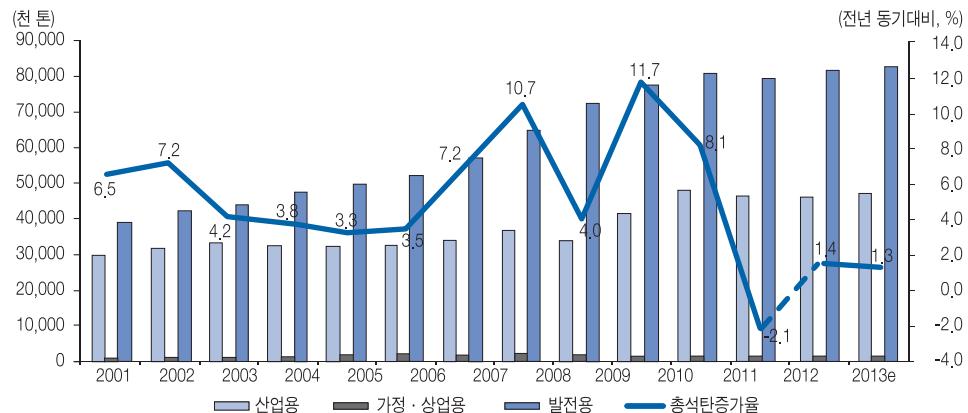
22) '13년 6월 완공, 용량 연산 328만 톤에서 565만 톤으로 확장

의 감소실적(-5.1%)로 인해 연간으로는 -4.5%를 기록할 전망

- 시멘트 산업 역시 건설경기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4.3%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 급증했던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하반기 기온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시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으로는 2.4% 감소

- 2014년 석탄수요는 발전 및 최종소비부문에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며 전년대비 1.3% 증가한 131.5백만 톤을 기록할 전망
 - 발전용 석탄수요는 2014년 중 완공예정이던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시점이 최소 1년 이상 연기되고, 연말 신규 석탄발전소(영흥화력 5호기)의 준공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50.8백만 톤에 이를 전망
 - 최종소비 부문의 석탄수요도 제철산업의 설비증설, 경제전반의 성장세 회복 등에 따라 1.3% 증가한 48.8백만 톤을 기록할 전망
 - 2012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현대제철의 제3고로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전방수요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1.0% 증가하며 반등할 전망
 - 시멘트산업 경기도 경제전반의 성장세 회복으로 인해 소폭 회복되겠으나 누적되어 있던 재고 등으로 인해 유연탄 소비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
 - 무연탄 소비는 가정·상업용소비(연탄)가 감소하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부문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그림III-29] 용도별 석탄 수요 전망



〈표III-9〉 1차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 분	2012p					2013e					2014e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무연탄계	2,551 (-9.0)	2,154 (-5.9)	2,495 (-7.9)	3,182 (-5.9)	10,381 (-7.2)	2,671 (4.7)	2,227 (3.4)	4,898 (4.1)	6,079 (7.1)	10,977 (5.7)	11,213 (2.2)
가정·상업	538 (-2.2)	145 (-15.7)	170 (-24.8)	982 (12.4)	1,835 (0.7)	557 (3.5)	165 (13.8)	722 (5.7)	1,069 (-7.2)	1,791 (-2.4)	1,734 (-3.2)
산업	1,894 (-10.5)	1,914 (-3.7)	2,151 (-7.6)	1,996 (-16.4)	7,954 (-9.8)	2,053 (8.4)	1,979 (3.4)	4,032 (5.9)	4,482 (8.1)	8,513 (7.0)	8,829 (3.7)
발전	119 (-13.8)	95 (-26.4)	174 (11.5)	204 (70.0)	592 (9.0)	61 (-48.7)	83 (-12.6)	144 (-32.7)	528 (39.8)	672 (13.6)	651 (-3.2)
유연탄계	30,080 (4.3)	27,160 (-2.2)	30,374 (-4.0)	30,053 (-4.4)	117,667 (-1.7)	30,009 (-0.2)	28,147 (3.6)	58,157 (1.6)	60,738 (0.5)	118,895 (1.0)	120,327 (1.2)
제철	7,827 (4.7)	7,773 (0.0)	7,892 (-7.3)	7,995 (0.0)	31,487 (-0.9)	7,693 (-1.7)	7,115 (-8.5)	14,808 (-5.1)	16,222 (2.1)	31,030 (-1.5)	31,329 (1.0)
시멘트	1,058 (0.6)	1,325 (-6.9)	1,092 (-11.1)	1,151 (-14.3)	4,626 (-8.3)	918 (-13.2)	1,289 (-2.7)	2,207 (-7.4)	2,218 (-1.1)	4,425 (-4.3)	4,429 (0.1)
기타산업	662 (-4.0)	582 (-3.9)	551 (-3.2)	624 (1.7)	2,419 (-2.4)	680 (2.8)	589 (1.3)	1,270 (2.1)	1,176 (0.0)	2,445 (1.1)	2,511 (2.7)
발전	20,533 (4.6)	17,480 (-2.7)	20,839 (-2.3)	20,283 (-5.5)	79,135 (-1.6)	20,718 (0.9)	19,154 (9.6)	39,872 (4.9)	41,122 (0.0)	80,994 (2.3)	82,058 (1.3)
석탄계	32,630 (3.1)	29,314 (-2.5)	32,869 (-4.3)	33,234 (-4.5)	128,048 (-2.1)	32,680 (0.2)	30,374 (3.6)	63,054 (1.8)	66,817 (1.1)	129,871 (1.4)	131,54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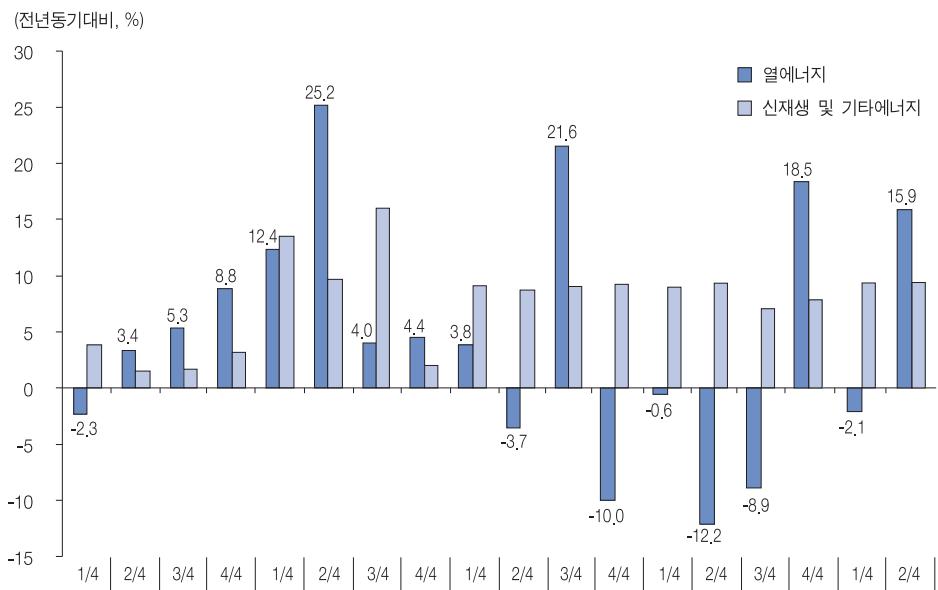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6 |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가. 소비 동향

- 2013년 상반기 열에너지 소비는 날씨의 영향으로 1.6% 증가하고, 신재생 · 기타에너지 소비는 9.3%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열에너지는 2분기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 수요 증가에 기인
 -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열에너지 소비는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음.
 - 신재생 · 기타에너지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398천 toe를 소비

[그림III-30] 열에너지 및 신재생 ·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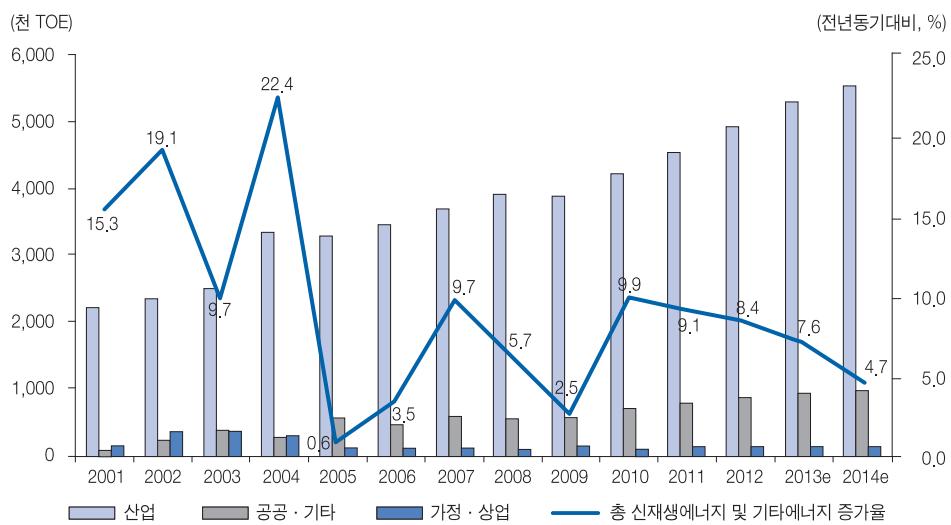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주: 데이터 레이블은 열에너지 증가율

나. 수요 전망

- 2013년 하반기 열에너지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1.4%) 하락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1,759천 toe를 기록할 전망
 - 열에너지 요금²³⁾은 2013년 7월 총괄요금 기준 4.9% 인상하였으나, 저렴한 요금으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점차 확대되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784천 toe를 기록할 전망

[그림III-31]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전망



- 신재생 · 기타에너지 수요는 2013년 하반기에 4.7%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7.0% 증가한 6,764천 toe를 기록할 전망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23)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가격 기준이며 열에너지 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조정이 원칙이나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산업부문에서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등에 기인하여 폐가스 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RPS 비율은 2%에서 10%까지 늘어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 추진으로 인해 2014년에는 4.7% 증가한 7,081천toe를 기록할 전망

〈표III-10〉 열에너지 및 신재생·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 toe)

구 분	2012					2013e					2014e
	1/4p	2/4p	3/4p	4/4e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열에너지	830 (-0.6)	215 (-12.2)	103 (-8.9)	604 (18.5)	1,751 (2.9)	813 (-2.1)	249 (15.9)	1,062 (1.6)	697 (-1.4)	1,759 (0.4)	1,784 (1.5)
신재생/기타	1,560 (9.1)	1,549 (9.4)	1,540 (7.2)	1,674 (7.9)	6,322 (8.4)	1,705 (9.3)	1,693 (9.3)	3,398 (9.3)	3,366 (4.7)	6,764 (7.0)	7,081 (4.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신재생·기타에너지에는 수송용 소비량이 포함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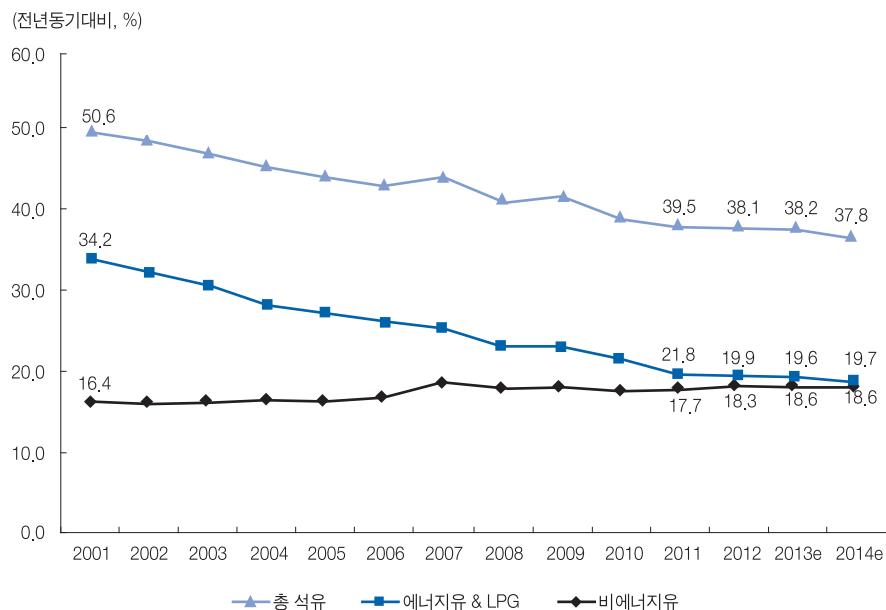
특징 및 시사점

가. 주요 특징

-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정지로 2013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년에는 이들 원전이 재가동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
 - 원자력은 2012년 하반기 신고리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에는 원자력 비중이 다소 상승
 - * 일차에너지 중 원자력 비중: ('12) 11.4% → ('13) 10.8% → ('14) 11.6%
- 총에너지 중 석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석유의 일차에너지 비중은 2010년에 4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38.2%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 37.7%, 2014년에는 37.2%로 하락
 - 산업용 비에너지유(납사, 아스팔트 등)를 제외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의 일차에너지 비중은 2012년에 19.6%에서 2013년에 19.2%, 2014년에 18.8%로 하락할 전망
 -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NG의 일차에너지 비중은 2012년 18.1%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원자력 발전 이용률 하락으로 발전용 LNG 수요 증가로 비중이 18.8%로 상승하고, 내년에도 18.9%로 상승할 전망
 - 비에너지유를 제외한 석유의 비중은 LNG와 비슷한 수준
 - 비에너지유의 일차에너지 점유율은 2012년에 18.6%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 18.6%, 2014년에 18.3%로 18%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하락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구조 변화에 기인

- 유가 상승으로 수송용 연료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발전용 석유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에서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대체됨.
- 석유류 가격은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실질가격에 큰 변화가 없어 전력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림III-32] 석유 의존도 추이 및 전망



- 산업부문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
 - 최종에너지 수요증가의 70% 내외가 산업부문에서 발생
 -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의 산업부문 기여도는 2013년 71%, 2014년 69%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
 - * 산업부문 수요 증가율(%) : ('10) 10.2 ⇒ ('11) 8.5 ⇒ ('12) 0.3 ('13) 2.0 ⇒ ('14) 2.8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은 도시가스와 전력

-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3.7%)은 경제성장률(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
 -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여 산업생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증가(4.6%)할 전망
 - 낮은 전기요금 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조 지속, 전기 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등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
 - 전력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 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임.
 - 2010년에 10.1%, 2011년에 4.8%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로 2012년에 2.5% 증가하고 2013년에 1.8% 증가하는 데 그침.

-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2012년에 0.251에서 2013년에 0.248, 2014년에 0.245로 개선
 -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2009년~2011년 기간 중 3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시 개선 추세로 돌아섬.
 - 2009~2011년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중·장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추세 속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활동 및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원단위 악화는 신규 철강설비 가동,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로 인한 에너지 전환손실량 확대 등으로 일차에너지 소비 증가율(1.1%)이 경제성장률(0.3%)을 추월한 데 따른 결과
 -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연산 4백만 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가진 제1고로를 1월에, 제2고로를 11월 말에 가동하여 선철 생산용 유연탄 소비가 급증하고, 이상 기후로 냉·난방용 에너지소비가 급증
 - 2011년에는 현대제철 제2고로 가동의 영향과 석유화학산업의 설비 증설에 따른 원료용 소비 급증에 기인함.

●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급증세 지속

-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2013년에 12.4%, 2014년에 10.1% 증가하여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산업용 도시가스는 1990~2000년 사이 연평균 30.3%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보급되었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06년까지는 5% 내외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2010년 이후 국제 원유가 가 \$100/bbl 이상을 지속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도 전년 대비 15.0% 증가

[그림III-33]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추이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빠른 증가는 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가 주된 요인

-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2013년에도 9.8% 증가하여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고유가가 지속되고 산업체의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석유 등으로부터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석유정제 · 화학 산업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나타남.

- 전체 제조업 중 석유정제 및 화학 산업의 도시가스 소비 비중은 2006년에 8.3%에서 2008년 19.5%, 2011년에는 26.3%까지 급상승함.

나. 정책 시사점

-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를 반영하여 저가격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전력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전기 사용방법 및 에너지소비 감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홍보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함.
- 동 · 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지속 추진 필요
 - 발전설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전의 가동정지로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금년에도 여전히 전력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
 - 2012년 하계 Peak Time 기준(8/6) 공급예비율은 3.8%(예비전력: 279만 kW)로 매우 낮았음.
 - 지난해 신고리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가 신규로 가동
 - 그러나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되어 금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둔화
 - 특히, 신규원전의 가동지연, 이상기후 발생,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 비상상황이 초래될 가능성 상존
 - 2013년 하반기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던 신월성 2호기(100만 kW)와 신고리 3호기(140만 kW)가 내년에도 가동이 어려울 전망
 - 2014년 전력수요는 3.7% 증가할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이 전개될 전망

? 따라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관리정책(피크전력 감축, 난방온도 제한조치 등)은 상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LNG 수급상황 점검 필요

- 일부 원전의 가동정지로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올해 발전용 LNG 수요가 급증(8.5%)할 전망
 -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용 LNG는 원자력발전 및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설비에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요가 급증
 - 2012년에도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로 수요가 급증
 - 또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신규 원전 가동이 지연될 경우에도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동계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게 되므로 동계 LNG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함.

● 산업용 에너지수요 증가의 유발요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납사 수요 증가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수요(중국 등)에 영향을 받고, 원료탄 수요는 제철산업 서비스중설(현대제철)에 영향을 받음. 이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원료용 납사 및 원료탄 수요와 함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심화하는 요인은 산업용 전력수요의 빠른 증가임. 전력가격을 정상화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와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심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향후 국가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

참고 문헌

- 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3. 각 월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급동향, 2013, 각 월호.
-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 2013.2.
-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동향, 각 월호.
- _____ , 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 2013.10.
- 한국은행, 2013~14년 경제전망, 2013.10.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각 월호.
- IEA, Oil Market Report, 2013. 1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commodity forecasts: industrial raw materials, Oct 2013
- 한국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
- 한국전력거래소, <http://www.kpx.or.kr>
- 석유정보망, 한국석유공사, <http://www.pronet.co.kr>
- 한국시멘트협회, <http://www.cement.or.kr>
- Steel Data, 한국철강협회, <http://steeldata.kosa.or.kr>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http://kosis.kr>
-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http://www.ecos.bok.or.kr>

부 록

1차에너지 소비

구 분		석탄(천톤)		석유 (천bbl)	LNG (천톤)	수력 (GWh)	원자력 (GWh)	신재생·기타 (천TOE)
		유연탄	무연탄					
2001	1/4	15,389	13,710	1,679	200,942	5,977	733	28,164
	2/4	17,671	16,126	1,545	174,533	2,795	1,009	27,072
	3/4	18,562	16,960	1,602	171,503	2,468	1,655	28,856
	4/4	19,200	16,891	2,310	196,689	4,750	754	28,041
2002	1/4	17,917	16,103	1,815	204,409	5,733	768	29,229
	2/4	18,426	16,872	1,554	174,647	3,105	1,280	28,992
	3/4	18,862	17,177	1,684	176,594	3,085	2,306	30,686
	4/4	20,747	18,113	2,633	207,217	5,846	955	30,195
2003	1/4	19,662	17,350	2,312	206,380	6,337	961	32,617
	2/4	19,237	17,286	1,951	175,959	3,881	1,794	28,337
	3/4	19,449	17,652	1,798	172,665	2,896	2,950	34,470
	4/4	20,771	18,252	2,520	207,938	5,496	1,182	34,235
2004	1/4	20,430	18,284	2,145	200,603	7,896	776	30,052
	2/4	19,487	17,753	1,735	176,569	4,400	1,201	30,823
	3/4	20,446	18,540	1,907	176,204	3,504	2,864	35,539
	4/4	21,753	19,402	2,351	198,953	6,009	1,021	34,302
2005	1/4	20,110	17,942	2,167	202,297	8,263	711	35,507
	2/4	20,134	18,429	1,705	180,118	3,918	1,247	37,630
	3/4	22,121	19,891	2,230	177,345	3,795	2,101	36,472
	4/4	22,459	19,527	2,932	196,943	7,374	1,130	37,169
2006	1/4	21,775	19,204	2,571	199,351	8,750	576	35,666
	2/4	20,660	18,421	2,239	180,475	5,144	1,254	36,161
	3/4	22,590	20,240	2,350	179,653	4,048	2,574	39,302
	4/4	22,802	20,133	2,669	206,041	6,676	814	37,620
2007	1/4	22,557	20,007	2,549	207,910	8,592	685	35,948
	2/4	22,218	19,991	2,227	191,921	5,340	1,013	34,219
	3/4	24,211	22,272	1,939	188,207	4,603	2,383	36,736
	4/4	25,143	22,160	2,983	206,908	8,128	961	36,034
2008	1/4	25,016	22,266	2,750	204,812	10,007	945	39,913
	2/4	25,116	22,705	2,410	182,864	5,244	1,292	36,231
	3/4	27,201	25,009	2,192	182,908	4,651	2,413	37,519
	4/4	26,866	24,003	2,863	190,057	7,537	913	37,295
2009	1/4	24,950	22,378	2,572	199,077	8,538	829	36,626
	2/4	25,080	23,210	1,870	192,507	4,625	1,410	37,340
	3/4	29,182	26,592	2,590	183,649	4,556	2,527	37,216
	4/4	29,166	26,422	2,744	203,247	8,364	875	36,588
2010	1/4	29,276	26,736	2,540	198,769	10,978	1,226	36,024
	2/4	28,520	26,117	2,463	193,459	6,720	1,558	36,473
	3/4	31,368	29,104	2,264	191,754	5,701	2,326	37,549
	4/4	31,805	28,969	2,836	210,296	9,684	1,362	38,550
2011p	1/4	31,657	28,852	2,805	206,763	12,406	1,559	37,459
	2/4	30,055	27,767	2,289	183,240	7,428	1,891	38,594
	3/4	34,347	31,639	2,709	201,194	6,230	3,361	38,195
	4/4	34,801	31,421	3,380	210,446	9,539	1,167	35,916
2012p	1/4	32,630	30,080	2,551	209,131	12,749	1,243	37,687
	2/4	29,314	27,160	2,154	201,161	7,914	1,849	36,425
	3/4	32,869	30,374	2,495	204,169	6,725	2,449	40,257
	4/4	33,234	30,053	3,182	212,986	11,097	1,518	35,959
2013p	1/4	32,680	30,009	2,671	205,328	12,700	1,744	37,049
	2/4	30,374	28,147	2,227	201,198	8,711	2,198	31,136

*p는 잠정치

1차에너지 소비

(단위: 천 TOE)

구 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기타	합계	
	유연탄	무연탄								
2001	1/4	9,902	9,049	854	27,102	7,770	183	7,041	565	52,563
	2/4	11,445	10,643	802	23,626	3,634	252	6,768	611	46,336
	3/4	12,037	11,193	844	23,114	3,209	414	7,214	585	46,573
	4/4	12,326	11,148	1,178	26,543	6,174	189	7,010	695	52,937
2002	1/4	11,593	10,628	965	27,483	7,453	192	7,307	603	54,630
	2/4	11,958	11,135	823	23,476	4,037	320	7,248	703	47,740
	3/4	12,232	11,337	895	23,585	4,010	577	7,672	751	48,826
	4/4	13,313	11,955	1,359	27,871	7,599	239	7,549	870	57,440
2003	1/4	12,683	11,451	1,232	27,730	8,238	240	8,154	754	57,800
	2/4	12,443	11,409	1,034	23,599	5,046	449	7,084	800	49,421
	3/4	12,618	11,650	968	23,063	3,765	738	8,618	766	49,568
	4/4	13,372	12,046	1,326	27,987	7,144	296	8,559	920	58,278
2004	1/4	13,198	12,068	1,131	26,891	10,264	194	7,513	911	58,970
	2/4	12,635	11,717	918	23,607	5,720	300	7,706	992	50,960
	3/4	13,263	12,236	1,027	23,470	4,555	716	8,885	953	51,842
	4/4	14,032	12,805	1,227	26,671	7,812	255	8,576	1,121	58,467
2005	1/4	12,984	11,841	1,142	27,660	10,742	178	8,877	940	61,380
	2/4	13,061	12,163	898	24,090	5,094	312	9,408	966	52,930
	3/4	14,334	13,128	1,206	23,510	4,933	525	9,118	922	53,342
	4/4	14,409	12,887	1,522	26,266	9,586	283	9,292	1,133	60,969
2006	1/4	14,024	12,674	1,350	26,602	11,375	144	8,917	1,024	62,086
	2/4	13,366	12,158	1,208	23,988	6,688	314	9,040	1,055	54,451
	3/4	14,621	13,358	1,263	23,733	5,263	644	9,825	1,007	55,093
	4/4	14,675	13,288	1,387	27,507	8,679	203	9,405	1,271	61,741
2007	1/4	14,248	12,820	1,428	27,724	11,169	147	7,729	1,137	62,153
	2/4	14,137	12,815	1,322	25,469	6,942	218	7,357	1,191	55,313
	3/4	15,399	14,249	1,149	24,825	5,984	512	7,898	1,115	55,733
	4/4	15,871	14,184	1,687	27,476	10,567	207	7,747	1,386	63,253
2008	1/4	15,787	14,269	1,518	27,082	13,009	203	8,581	1,200	65,862
	2/4	16,008	14,548	1,459	24,040	6,817	278	7,790	1,246	56,178
	3/4	17,284	15,979	1,306	23,925	6,047	519	8,067	1,191	57,033
	4/4	16,981	15,359	1,622	25,124	9,799	196	8,018	1,561	61,680
2009	1/4	15,750	14,239	1,512	26,304	11,099	178	7,875	1,302	62,509
	2/4	15,902	14,773	1,129	25,334	6,013	303	8,028	1,329	56,909
	3/4	18,521	16,932	1,589	23,955	5,923	543	8,002	1,258	58,201
	4/4	18,430	16,848	1,582	26,743	10,873	188	7,867	1,590	65,692
2010	1/4	18,579	17,054	1,525	26,155	14,272	265	7,745	1,497	68,511
	2/4	18,281	16,741	1,540	25,378	8,736	336	7,842	1,520	62,092
	3/4	20,003	18,596	1,407	25,100	7,411	500	8,073	1,510	62,598
2011p	2/4	20,229	18,559	1,670	27,666	12,589	293	8,288	1,538	70,603
	1/4	20,200	18,486	1,713	27,248	16,128	335	8,054	1,658	73,622
	2/4	19,281	17,837	1,444	24,015	9,656	407	8,298	1,614	63,270
	3/4	22,002	20,297	1,705	26,306	8,099	723	8,212	1,600	66,942
2012p	4/4	22,157	20,121	2,036	27,577	12,401	251	7,722	1,746	71,854
	1/4	20,601	19,187	1,415	26,770	16,625	262	7,952	1,773	73,983
	2/4	18,621	17,383	1,238	25,842	10,320	390	7,686	1,764	64,622
	3/4	20,798	19,374	1,424	26,108	8,770	517	8,494	1,740	66,427
2013p	4/4	20,900	19,184	1,716	27,415	14,471	320	7,587	1,896	72,589
	1/4	20,624	19,132	1,492	26,294	16,561	368	7,817	1,938	73,603
	2/4	19,216	17,936	1,280	25,811	11,359	434	6,570	1,928	65,348

*p는 잠정치

최종에너지 소비

구 분	석탄 (천톤)			석유 (천bbl)	도시가스 (백만m ³)	전력 (GWh)	열에너지 (천TOE)	신재생·기타 (천TOE)
		유연탄	무연탄					
2001	1/4	7,442	6,404	1,038	188,249	5,322	63,577	555
	2/4	7,888	7,006	882	163,746	2,561	62,426	142
	3/4	7,858	6,860	998	161,307	1,498	66,002	53
	4/4	8,344	6,816	1,529	184,906	3,277	65,727	400
2002	1/4	7,912	6,575	1,337	191,225	5,236	69,675	518
	2/4	8,071	7,110	961	164,659	2,681	67,328	153
	3/4	8,129	7,057	1,072	170,630	1,773	69,398	73
	4/4	9,139	7,380	1,759	195,790	4,184	72,048	479
2003	1/4	8,733	7,070	1,663	190,807	5,941	75,945	603
	2/4	8,384	7,221	1,163	168,569	2,948	71,066	171
	3/4	8,491	7,286	1,205	167,110	1,896	71,697	82
	4/4	9,170	7,331	1,840	196,171	3,948	74,892	445
2004	1/4	8,451	6,988	1,462	190,420	6,292	80,189	632
	2/4	8,203	7,146	1,058	169,876	3,167	75,335	186
	3/4	8,309	6,998	1,312	169,968	2,017	78,461	83
	4/4	9,285	7,335	1,950	189,016	3,943	78,112	442
2005	1/4	8,558	6,758	1,650	188,427	6,922	84,772	731
	2/4	7,980	6,924	1,056	173,629	3,432	80,103	193
	3/4	8,815	7,187	1,628	172,979	2,096	83,125	80
	4/4	9,413	7,068	2,346	190,479	4,513	84,413	526
2006	1/4	8,448	6,473	1,976	188,432	7,103	91,066	683
	2/4	8,560	6,944	1,615	175,351	3,532	83,789	206
	3/4	8,676	6,922	1,754	175,093	2,332	87,292	89
	4/4	9,588	7,460	2,128	195,723	4,536	86,573	448
2007	1/4	8,821	6,857	1,964	195,302	6,898	93,771	647
	2/4	8,789	7,169	1,620	184,712	3,762	88,608	209
	3/4	8,824	7,375	1,448	183,663	2,387	92,196	89
	4/4	10,052	7,543	2,509	199,909	4,956	94,031	493
2008	1/4	9,779	7,562	2,218	196,809	7,367	102,601	733
	2/4	9,770	7,870	1,899	179,538	3,631	92,177	197
	3/4	9,500	7,776	1,724	179,181	2,733	96,355	85
	4/4	10,399	7,984	2,415	185,412	5,003	93,938	498
2009	1/4	8,227	5,989	2,238	187,205	6,916	100,271	716
	2/4	8,218	6,664	1,554	186,082	3,591	93,994	203
	3/4	9,463	7,226	2,237	181,009	2,664	99,000	89
	4/4	10,019	7,632	2,387	197,938	5,274	101,209	542
2010	1/4	9,887	7,566	2,321	188,735	7,664	112,501	805
	2/4	11,049	8,768	2,281	187,740	4,234	103,635	254
	3/4	10,587	8,535	2,052	186,656	2,640	109,070	93
	4/4	11,993	9,383	2,610	204,256	5,445	108,953	566
2011p	1/4	11,885	9,218	2,667	196,258	8,485	121,410	835
	2/4	11,962	9,803	2,160	179,725	4,389	108,953	245
	3/4	12,863	10,311	2,553	197,485	3,220	112,542	113
	4/4	13,214	9,954	3,260	205,431	5,585	112,166	509
2012p	1/4	11,978	9,547	2,432	199,075	8,673	124,743	830
	2/4	11,739	9,680	2,059	192,853	4,520	111,496	215
	3/4	11,856	9,535	2,321	198,146	3,615	115,932	103
	4/4	12,747	9,770	2,978	206,463	6,968	114,422	604
2013p	1/4	11,901	9,291	2,610	198,441	9,508	125,024	813
	2/4	11,137	8,993	2,144	174,725	5,250	113,834	249

*p는 잠정치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천 TOE)

구 분	석탄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열에너지	신재생·기타	합계	
	유연탄	무연탄								
2001	1/4	4,837	4,227	610	25,156	5,544	5,468	555	565	42,124
	2/4	5,174	4,624	550	21,950	2,611	5,369	142	611	35,857
	3/4	5,141	4,527	614	21,523	1,575	5,676	53	585	34,554
	4/4	5,380	4,499	882	24,728	3,560	5,653	400	695	40,414
2002	1/4	5,122	4,339	783	25,453	5,497	5,992	518	603	43,186
	2/4	5,289	4,692	597	21,925	2,815	5,790	153	703	36,675
	3/4	5,320	4,658	662	22,663	1,861	5,968	73	751	36,637
	4/4	5,897	4,871	1,027	26,118	4,393	6,196	479	870	43,953
2003	1/4	5,652	4,666	986	25,349	6,238	6,531	603	746	45,119
	2/4	5,501	4,766	735	22,450	3,096	6,112	171	793	38,122
	3/4	5,552	4,809	743	22,200	1,991	6,166	82	759	36,750
	4/4	5,905	4,838	1,067	26,155	4,146	6,441	445	913	44,004
2004	1/4	5,483	4,612	871	25,313	6,607	6,896	632	900	45,831
	2/4	5,377	4,716	661	22,570	3,926	6,479	186	980	38,917
	3/4	5,419	4,618	801	22,500	2,118	6,748	83	939	37,807
	4/4	5,915	4,841	1,074	25,130	4,140	6,718	442	1,110	43,454
2005	1/4	5,406	4,460	946	25,515	7,268	7,290	731	922	47,132
	2/4	5,222	4,570	652	23,090	3,604	6,889	193	950	39,948
	3/4	5,720	4,744	977	22,841	2,200	7,149	80	908	38,898
	4/4	5,964	4,664	1,299	25,272	4,739	7,259	526	1,116	44,876
2006	1/4	5,396	4,272	1,124	24,907	7,458	7,832	683	965	47,241
	2/4	5,554	4,583	971	23,202	3,709	7,206	206	1,002	40,879
	3/4	5,605	4,568	1,036	23,027	2,449	7,507	89	956	39,632
	4/4	6,106	4,924	1,182	25,901	4,763	7,445	448	1,169	45,832
2007	1/4	5,822	4,666	1,156	25,763	7,240	8,064	647	1,054	48,590
	2/4	5,905	4,865	1,039	24,352	3,969	7,620	209	1,104	43,159
	3/4	5,935	5,013	921	24,121	2,518	7,929	89	1,053	41,645
	4/4	6,588	5,122	1,466	26,386	5,228	8,087	493	1,280	48,062
2008	1/4	6,423	5,153	1,270	25,900	7,772	8,824	733	1,111	50,762
	2/4	6,572	5,351	1,222	23,535	3,831	7,927	197	1,171	43,232
	3/4	6,382	5,294	1,088	23,348	2,884	8,287	85	1,116	42,102
	4/4	6,841	5,427	1,414	24,433	5,278	8,079	498	1,350	46,479
2009	1/4	5,434	4,077	1,356	24,499	7,297	8,623	716	1,154	47,723
	2/4	5,496	4,514	982	24,362	3,788	8,083	203	1,188	43,121
	3/4	6,350	4,925	1,425	23,574	2,810	8,514	89	1,134	42,472
	4/4	6,614	5,198	1,416	25,934	5,564	8,704	542	1,391	48,750
2010	1/4	6,591	1,423	5,169	24,700	8,162	9,675	805	1,309	51,242
	2/4	7,440	1,455	5,985	24,531	4,671	8,913	254	1,303	47,111
	3/4	7,151	1,308	5,843	24,349	2,985	9,380	93	1,316	45,275
	4/4	7,981	1,565	6,416	26,800	5,822	9,370	566	1,418	51,959
2011p	1/4	7,962	1,649	6,313	25,755	9,133	10,441	835	1,430	55,556
	2/4	8,084	1,384	6,700	23,530	4,866	9,370	245	1,415	47,510
	3/4	8,706	1,633	7,074	25,788	3,644	9,679	113	1,437	49,367
	4/4	8,791	1,980	6,811	26,903	6,029	9,646	509	1,551	53,431
2012p	1/4	7,899	6,538	1,361	25,416	9,189	10,728	830	1,560	55,622
	2/4	7,810	6,616	1,195	24,667	4,969	9,589	215	1,549	48,799
	3/4	7,883	6,537	1,346	25,213	3,942	9,970	103	1,540	48,650
	4/4	8,314	6,690	1,624	2,6414	7,344	9,840	604	1,674	54,190
2013p	1/4	7,834	6,370	1,464	25,268	9,777	10,752	813	1,705	56,248
	2/4	7,380	6,137	1,242	24,813	5,393	9,790	249	1,693	49,375

*p는 잠정치

KEEI 에너지수요전망(제15권 제3호)

2013년 11월 일 인쇄

2013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손양훈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우)437-713

전화 : (031)420-2114(代)

팩시밀리 : (031)422-4958

등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쇄 범신사 (02)503-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9 771599 900002
ISSN 1599-9009

33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 031-420-2114

팩스 : 031-422-4958

전자우편 : webmaster@keei.re.kr

홈페이지 : <http://www.keei.re.kr>